평양민속공원을 찾은 재중동포들

금수강산

1

주체103(2014)

루계 제293호 월간

 ISSN 1727—9062

조국찬가

2.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나라
행복은 넘쳐라 인민의 조국

3. 구름우엔 참매 날고 목란꽃 핀 이 강산
슬기롭고 아름다운 조선의 모습
부러움 없어라 아침의 나라

4.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그 모양
억센 기상 하늘에 닿은 이 조선
심장을 바치자 이 조선 위해

5.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붓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빛나라 이 조선 인민공화국

차 례

새해를 축하합니다

동포 여러분, 새해를 축하합니다.

주체103(2014)년을 맞이하는 이 시각 본사편집부는 해외동포 여러분에게 조국인민들의 마음을 담아 새해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사는 곳은 서로 달라도 조국을 그리는 동포들모두의 마음이 지척에 있는것만 같아 우리의 생각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지난해에 동포 여러분은 조국의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에 이바지하기 위해 뜨거운 마음들을 아낌없이 바쳐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의 첫 아침에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애국의 마음으로 더욱 불같이 살 결의에 넘쳐있던 여러분이였습니다.

몸은 비록 해외에 있어도 조국인민들과 마음과 걸음을 맞추어온 동포들,

여러분은 새해벽두부터 우심해지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주시하면서 성명과 담화, 시위와 집회 등으로 투쟁의 도수를 높이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과 공화국창건 65돐을 더욱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해외에서도 여러가지 기념행사들을 성과적으로 조직진행함으로써 민족의 단결된 힘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며 받들어온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더 잘 받들어나가는 길이 민족이 사는 길임을 너무나 잘 알고있기에 해외에 사는 동포들모두가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변함없이 걸어올수 있었던것입니다.

푸르른 조국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언제나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있는 지성을 아낌없이 바쳐온 동포들의 365일,

그 나날 우리는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통일을 위해 내짚은 그 한걸음한걸음이 모두 애국의 길과 잇닿아있음을 다시한번 깊이 새겨안게 되였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달려온 여러분의 그 모든 낮과 밤, 뜨거운 진정과 불타는 투쟁열의가 담긴 글과 사진들은 《금수강산》잡지의 지면에 그대로 실리여 동포대중을 애국의 길로 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해동안 여러분의 그 모습을 《금수강산》잡지에 다 담지 못한 아쉬움도 우리들의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독자 여러분의 남다른 관심속에 일하는 긍지와 보람을 안고 새해에도 해외동포 여러분의 마음과 더 가까이하여 뜨거운 심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좋은 글, 좋은 화면들을 더 많이 잡지 《금수강산》 지면에 담아갈것입니다.

여러분, 누리에 빛나는 사회주의조국을 우러르며 마음도 든든히, 긍지도 드높이 조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한길로 우리 함께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걸어나아갑시다.

그리고 새해에 취재길과 지면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아울러 새해에도 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수강산》편집부

따뜻한 답례

언제인가 고국을 방문하였던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리 알렉쎄이동포는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처음 뵈올 때 저는 마치 태양을 가까이한것처럼 순간에 뜨거운 열기가 내 몸에 와닿는것 같았습니다. 저는 온 세계가 경모하는 그이의 위인적풍모에 매혹되여 목청껏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저는 그이께서 지니신 인민적풍모를 먼저 읽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해외동포 한 사람의 심정만이라고 하랴.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로 칭송하며 그토록 몸가까이에서 뵙고싶어하는 인민의 념원은 한결같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병사들을 찾아, 인민들을 찾아가시는 그 어디에서나 그이를 흠모하고 칭송하는 메아리가 끝없이 울려퍼진다.

지난해 3월에 이어 9월에 또다시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월내도방어대를 시찰하신 원수님께서는 섬에 건설한 병영과 살림집들, 유치원과 분교 등을 돌아보시며 섬초소의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의 부모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마음이 한결 놓인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헤여지기 아쉬워 눈물을 쏟으며 바다물속에 뛰여드는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을 보시고 배에서 내리시여 어서 나오라고, 나오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다고, 지휘관이 병사들이 나오도록 명령을 내리라고 하시며 그들이 모두 나오는것을 보시고서야 배에 다시 오르시였다. 원수님께서는 배전에 서시여 그들에게 오래도록 손저어주시였다.

환한 미소를 남기시는 그이와 병사들, 군인가족들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도 그들의 마음은 진정 원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오래도록 정을 담아 보내시는 그이의 답례를 받으며 병사들과 인민들은 어버이의 따뜻한 사랑과 정, 크나큰 믿음을 가슴에 안았다.

위대한 인민적풍모가 비낀 **김정은**원수님의 따뜻한 답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혼연일체의 화폭은 조국땅 그 어디에 가나 끝없이 펼쳐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남기고있다.

강성원에서 울려퍼진 행복의 웃음소리는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있다.

몇해전 어느날, 평범한 로동자들을 위하여 어느 한 공장에 훌륭하게 세워주신 강성원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그 공장로동계급이 누리게 될 행복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엎어질듯 달려나온 봉사원들이 그이의 품에 허물없이 안기였다.

그이께서는 그들이 올리는 마음속소원도 다 들어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면서 기쁨속에 시간을 보내시였다. 자나깨나 그이를 기다려온 그들은 어버이의 육친적인 사랑과 함께 로동계급을 위하여 훌륭히 복무할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으며 눈시울을 적시고 또 적시였다.

생각할수록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재부라고 하신 그이의 말씀이 뜨겁게 되새겨진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붉은 넥타이를 매시고 소년단원들속에 계시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신 분, 소문도 없이 새집들이한 창전거리의 평범한 가정들을 찾으시여 늘 함께 사는 한집안식구처럼 그들과 기쁨을 나누신 분, 인민들과 어린이들이 올린 소박한 편지들을 보아주시고 사랑의 친필을 새겨주시는 분…

그이의 한없이 따사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사람들은 인민사랑의 화원을 가꾸어가시는 절세위인을 충정으로 받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고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생활하시고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마음속그늘도 다 가셔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진정 뜨거운 열과 정으로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쳐가시며 인민의 열렬한 칭송에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인사로 화답하시는 그이의 답례는 언제나 따뜻하다.

본사기자 연 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창성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013년 6월)

경제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놓으시며

도미니까혁명적대안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 조선은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면서 경제강국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조선에서 세기를 뒤흔들고 우리들에게 신심을 안겨주는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는 것은 **김정은**동지의 정치의 결실이다.

그의 말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에 주목을 돌리게 한다.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

오늘 조국의 경제강국건설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대동강타일공장에 마감건재들을 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공정이 일떠서고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 메타놀생산공정이 새로 건설되였으며 단천제련소에 대규모의 산화아연생산공정이 건설되고 조액공정 1단계 개건공사가 완공된것을 비롯하여 많은 단위의 중요생산공정들이 현대화되고있다.

그리고 인민경제의 중요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접히 결합시키기 위한 힘찬 투쟁이 벌어져 공작기계를 비롯한 생산설비들의 CNC화가 추진되고 많은 단위들이 통합생산체계를 비롯한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실현하였거나 추진하고있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이룩되고 있는 이러한 성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첨단돌파에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여기에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시려는 그이의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지난해에만 보아도 그이께서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창성식료공장, 보성버섯공장,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등 나라의 크고작은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 기업소 등

기능성3겹온실 박막 생산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방목지로 전변된 세포등판

무연히 펼쳐진 고산과수농장

경제강국건설의 그 어느 단위를 현지지도하시여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과 과학기술은 어떻게 밀착시켜야 하고 발전적인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하며 기계설비, 생산공정의 현대화는 어떤 수준에서 실현해야 하는가를 일일이 밝혀주신다.

뿐만아니라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세계적수준을 돌파해나가도록 새로운 과업도 주시며 그 실현에로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을 고무추동하고계신다.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찾으시여서는 기술개건사업의 묘리와 그 방안도 일깨워주시고 자강도의 여러 공장에 가시여서는 생산정상화와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방도를 밝혀주시였으며 어느 한 기계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세계적으로 발전된 기계제품들의 성능과 기술적지표들을 압도하도록 명확한 길을 가리켜주신 그이이시였다.

그이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최첨단돌파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는데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조국은 실천으로 증명하고있다.

경제강국건설의 추동력—《마식령속도》

《마식령속도》는 오늘 조국에서 널리 쓰이고있는 시대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강원도의 마식령지구에 인민들의 문화생활에 이바지할 스키장을 건설할것을 발기하시고 그 과업을 인민군대에 맡겨주시였다.

그이의 명령을 받은 군인건설자들은 말도 넘기 힘들어 쉬여가는 령이라고 하여 마식령으로 불리우는 험한 산발들에 착공의 첫삽을 박았다.

그때로부터 불과 1년남짓한 사이에 건설자들은 수십만㎡의 면적에 총 연장길이가 근 11만m이고 40～120m의 폭을 가진 초, 중, 고급스키주로들을 닦아놓았고 주로들에 잔디를 심었으며 호텔과 관리건물, 지하주차장, 삭도감시초소, 차고, 변전소, 직승기착륙장을 비롯한 여러 대상건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에서

문수물놀이장

설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5월말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스키장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그후에는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호소문을 보내주시였다.

그이의 호소문은 사회주의건설장들마다에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였고 새로운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안아왔다.

금속, 석탄, 기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마식령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이 휘몰아쳤다.

경공업부문 공장들에서는 만부하의 동음높이 갖가지 식료품들과 생활필수품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났으며 농업부문에서도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그러한 속에 어랑천2호발전소와 비타민C공장을 비롯한 여러 건설대상이 준공된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전력보장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이 하루가 다르게 진척되고 세포등판개척자들은 등판개간과 풀판조성, 축산기지건설에서 총공세를 벌리였다. 그리고 도처에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그려보게 하는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수많이 솟구쳐오르고 도시와 마을들이 선경으로 변모되고있으며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지고있다.

경제건설에 힘을 넣어 하루빨리 부강조국을 일떠세우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행복한 락원을 펼쳐주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옥류아동병원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새집들이를 하였다.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이고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오늘 고산과수농장으로부터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 등 곳곳으로 이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현지지도는 《마식령속도》에 박차를 가하여 경제강국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시간을 주름잡아 달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새로운 진군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해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머지 않아 이 땅우에 경제강국을 건설할것이다.

중요건설장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활로를 열어놓으시는 그이의 마음속에는 파연 무엇이 자리잡고있는것인가.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고 한다.

우리는 모두가 인민의 아들딸들이다. 우리는 인민의 아들딸로서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인민의 아들딸답게 하루빨리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추켜세워 기어이 내 나라, 내 조국을 인민이 잘 살고 모든것이 흥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일떠세워야 한다. …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조선중앙통신

류경구강병원

《제일 알고싶은 령도자》

두해전 12월 웰남중앙TV방송은 《제일 알고싶은 령도자》라는 제목의 글을 실은바 있다. 보건대 그 발표를 전후한 두해사이에 세계각국의 2만여개 출판보도물이 그와 같은 내용의 편집물을 수많이 실었다.

주체100(2011)년 12월의 열흘남짓한 사이에는 미국의 구글(세계최대의 인터네트검색전문웹싸이트)에 6 740만건, 시간당 약 23만건이 실리였다.

우리는 여기서 그 분의 위인상을 몇가지로 본다.

그이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그이의 사상

사상은 흔히 말과 글에서 표현된다.

주체101(2012)년 4월 6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의 한 부분이 주목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입니다.》

이 명제에 그이의 사상이 담겨져있다. 하기에 로씨야신문 《울라지보스또크》(2012. 12)도 《그이의 최대의 사명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완성하시는것》이라고 전했던가 싶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리념밑에 조국해방, 민족해방을 이룩하시였으며 인민의 진정한 사회, 사회주의사회를 일떠세우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심화발전시키시며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고립압살책동과 전쟁책동을 물리치고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으시였다.

자주로 인간의 존엄을 알고 선군으로 민족의 존엄을 지켰으며 사회주의로 존엄높은 삶을 누려온 공화국의 현실은 그대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진리성을 보여주었다.

하기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자신의 첫 공개연설에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조선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당시 세계 1만 2 000여개의 출판보도물은 《**김정은**령도자,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받드는 길에서 한치의 드팀도 없음을 선언》이라고 한결같이 보도하였다.

실지 그러했다.

그이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정립하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을 거듭 밝히시였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라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관한 문제,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문제…

그이의 사상은 대중의 마음을 울리였다. 대중이 공감하면 그것은 진리이다.

그이의 령도

두해전 8월에 있은 일이다.

당시 공화국남반부에서는 북을 선제공격하기 위하여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을 비롯한 50만여명이 동원된 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였다.

바로 그때 그이께서는 27㎰발동선을 타시고 서남전선의 섬방어대들을 찾으시였다.

그 상황을 두고 재미통일학연구소 소장은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김정은**제1위원장이 타고 나간 작은 목선만으로도 원자로 2기와 초대형 증기타빈 4대로 움직이는 핵추진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의 침입을 꺾을수 있다는 담력과 배짱의 상징으로 된다.》

일촉즉발의 정세가 또다시 고조되던 지난해 6월에는 적들과의 거리가 불과 350m밖에 되지 않는 까칠봉초소를 찾으신 그이이시다. 남조선언론들은 이에 대해 《<K—2>소총의 유효사거리가 600m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그 분의 시찰은 단신으로 방대한 무력, 유생력량과 맞서 이기신

한판 승리》라고 하였다.
그이께서는 그렇듯 담대한 배짱을 지니시고 인민군초소들을 찾으시면서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과 군사훈련, 후방사업 등을 지도하신다.
그이의 령도는 단숨에, 이 말과도 잘 어울린다.
그이께서는 하나의 창조물을 일떠세워도 최단기간내에, 그것도 건설의 3대요소인 설계와 시공, 건재가 세계적수준에서 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신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 한개 단위에만도 집중적인 현지지도를 거듭하시며 목표를 달성하게 하시고 그 성과가 널리 일반화되도록 하신다. 지난해 9월 한달사이에 여러차례나 찾으시였던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그이의 령도밑에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서는 비약의 속도, 《마식령속도》가 창조되여 10년이 걸려도 해낼수 없다던 방대한 건설을 한해사이에 다그쳤다. 대규모축산기지로 변모되는 세포등판개간현장에서는 한해에 1 000정보씩 개간하여도 기적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계산법을 릉가하여 한해사이에 수만여정보의 인공풀판과 자연풀판을 개간 및 정리하고 많은 건물들을 일떠세웠다.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 미림승마구락부, 은하과학자거리 등이 그렇게 단 몇개월사이에 일떠섰다. 그리고 전국각지의 공장, 기업소들이 그 흐름속에 증산으로 용을 쓰고있고 교육, 체육 등의 부문에서도 그 열기속에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체육의 대중화열풍이 일고있다.
그이의 령도는 종심이 깊고 정력적이며 다방면적이고 세심하며 생활력이 뚜렷하다.

그이의 풍모

오늘날 그이의 현지지도소식을 담은 동영상편집물들을 보면 례외없이 군인들과 인민들이 만세의 함성을 터치는 모습을 볼수 있다. 그이의 품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저마다 그이의 팔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가운데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 참가했던 2만여명의 아이들도 있고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했던 어머니들도 있으며 전승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80고령의 전쟁로병들도 있다.
과연 그이는 어떤 분이신가.
지금도 사람들은 주체100(2011)년 12월 **김정일**대원수님을 잃고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던 때를 잊지 않고있다. 그때 전국의 조의식장들마다에는 몸녹이는 뻐스와 치료장소들이 생겨났다. 인민들은 더운 차를 마시며 조의를 표시하고 일군들은 호상서는 인민들에게 모자를 씌워주고 장갑도 끼워주며… 바로 이러한 조치를 취해주신 분이 가장 큰 슬픔을 안고계신 **김정은**원수님이시였다.
인간의 마음은 사랑에 녹는 법이다. 78년만에 닥쳐온 그해 12월의 강추위도 그 사랑이 있어 인민의 마음을 얼구지 못하였다.
그이의 마음속 첫자리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다. 그이께서는 그 어디를 찾으시여도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적으로, 발이 닳도록 인민들속으로, 선 편리성, 후 미학성 등의 말씀을 하신다. 인민들이 쓰고 사는 건물이라면 손수 바닥까지 쓸어보시고 인민들이 맨발로 다녀야 할 물놀이장이라면 자신께서도 그렇게 짚어보시며 가늠해보시는 그 모습, 한창 건설중인 건물의 란간없는 계단도 오르시며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는 그 발걸음, 바람세찬 건설장에서 수첩에 그림까지 그리시며 훌륭함에 완벽함을 더해주시는 그 손길이 릉라인민유원지며 창전거리를 비롯한 인민들이 있는 곳마다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남조선 정치평론가 리형준은 이렇게 썼다.
《평생 사랑을 설교하던 미국의 빌 그라함목사는 이북방문 인상기에서 인류가 바라던 리상사회를 알려거든 조선에 가보라고 밝히였다. 이것은 … 현실에서 찾은 진정한 사랑에 대한 설교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은 그이께 있어서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다.
인간은 이러한 위인을 진심으로 따른다.

우리는 글을 마감지으며 몇가지 내용을 첨부한다.
《**김정은**원수님의 위인상은 폭과 깊이에 있어서 무한대하다.》(중국 길림성 길림시 홍영순 동포 2013. 10)
《**김정은**, 인류력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커다란 관심을 모은 령도자》(미국잡지 《타임》 2012. 12)
지금 세계각국의 정부수반들, 수많은 각계층 인사들과 단체들은 그이께 지성어린 선물들을 올리고있다. 두해전 4월에만도 그이께 올린 상, 훈장, 메달, 명예칭호, 축기와 선물은 무려 200여점이나 된다.

본사기자 홍정혁

경제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태양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하늘에 닿은 사회주의조국땅에 새해 주체103(2014)년이 밝아왔다.

새해의 이 아침, 불멸의 태양기를 휘날리며 지난 한해동안 걸어온 길을 되새겨보는 온 겨레의 가슴속에는 사회주의조국의 백승의 활로를 열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차넘친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 조국인민들은 경제강국건설위업수행에서 커다란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왔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룡양광산과 평양양말공장 등 온 나라의 공장, 기업소들이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앞당겨 넘쳐 수행하였고 마식령스키장건설장과 세포등판개간현장 등에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들이 창조되였다. 그리고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은하과학자거리,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 등이 훌륭하게 완공되여 사람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불씨로 하여 온 나라에 타번진 애국의 불길은 조국통일부문에서도 세차게 타번져져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하기 위한 사업 등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비록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희망의 표대인 우리 민족끼리리념이 있었기에 온 겨레는 좌절을 모르고 통일의 한길로 도도히 전진할수 있었다.

단합된 힘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자주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며 변함이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하여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사회주의조선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솟구쳐오를것이다.

이것이 우리 조국의 군대와 인민이 지난해의 투쟁속에서 체득한 진리이다.

올해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서거 20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조국땅우에 진정한 인민의 국가를 일떠세우시고 탁월한 전략전술과 현명한 령도로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의 기적을 창조하시여 조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시였다.

오늘 조국인민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 결의에 넘쳐있다.

온 겨레가 **김정일**애국주의를 피끓는 심장에 소중히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해 떨쳐나설 때, 누가 보건말건 무슨 일에나 진심을 바쳐나갈 때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사업은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상 식

묘향산 백운대

백운대는 묘향산 수림속에 우뚝 솟은 바위로서 묘향산의 련봉들을 부감하는데서 더없이 좋은 전망대이다. 백운대라는 이름은 이곳이 하도 높아 흰구름을 허리에 두르고 솟아있는 바위라는데서 지어진 이름이다.

백운대는 비로봉답사숙영소에서 우로 2. 6km떨어진 곳에 있다. 백운대에서는 우리 나라 높은 지대의 식물상과 동물상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직접 관찰할수 있다.

예로부터 묘향산에서 유명한 전망대로 알려진 백운대에 오르면 주위의 측백나무들에서 풍기는 향기

조국인민들의 투쟁에 발걸음 맞추자

우리 조국이 걸어온 창조와 건설의 년대기들에는 조국의 부강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수많은 해외의 동포들이 기록되여있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경제강국건설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너도나도 찾아한다면 경제강국건설은 그만큼 빨리 추진될것이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은 인민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이다.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져 오래동안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통일은 곧 애국이고 분렬은 곧 매국이다.

오늘의 정세는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누구나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6. 15북남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에 거족적으로 떨쳐나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마련한 6. 15의 고귀한 결실들을 되살려내고 선언리행이 더이상 거스를수 없는 대세의 흐름으로 확고히 전환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민족적판도에서 선언리행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북남선언들의 리행을 추동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련대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북남선언들을 부정말살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배격하여야 한다.

북과 남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악랄한 체제대결,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온 겨레는 외세를 등에 업고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걸고들며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를 파괴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남조선괴뢰들의 정치, 군사적도발행위들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그에 단호히 대응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내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정력을 다하여야 한다.

민족의 단합은 조국통일의 결정적담보이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련대련합투쟁을 벌려야 한다.

6. 15민족공동위원회는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부단히 높여 해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뛰여넘어 우리 민족끼리리념아래 굳게 단결하도록 하며 남조선에서 반공화국모략책동과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파쑈탄압소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온 민족이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애국의 힘을 합쳐나갈 때 조국의 통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제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국인민들의 투쟁에 발걸음 맞추며 내외반통일세력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삼천리강토우에 평화롭고 번영할 조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할것이다.

*　　*　　*

에 취할뿐아니라 상원동, 만폭동 등 묘향천을 끼고 이루어진 계곡들과 봉우리들을 거의나 볼수 있다.

백운대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원만봉, 석가봉, 천태봉 등 기암절벽을 이룬 봉우리들이, 남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마치 수백마리의 말들이 내닫는듯 한 인상을 주는 백산, 칼봉, 탁기봉, 시루봉, 문필봉 등이 한눈에 안겨온다. 또 동쪽을 바라보면 칠성봉, 강선봉, 돛대봉 등이 마주서있다.

하기에 예로부터 백운대에 오르지 않고서는 묘향산의 경치를 론하지 말라고까지 하였다고 한다. 특히 흰구름이 계곡을 따라 피여오를 때 묘향산의 수많은 계곡들은 구름밑에 사라져버리지만 구름우에 솟은 벼랑과 봉우리들은 한없이 높아보인다.

백운대에서 단풍으로 물든 묘향산의 가을풍경을 한눈에 바라보는것도 매우 아름다운 절경이다. 하기에 우리 조상들은 백운대에서의 단풍구경이 가을경치구경에서 으뜸이라고 하여 묘향산8경의 하나로 일러왔다.

*　　*　　*

단결의 시위

조직이 꾸려지고 늘어나는데 따라 우리는 실천투쟁에 들어갔다.

그 서막으로 된것이 1928년 여름에 있은 길림육문중학교 동맹휴학이였다.

그때까지 육문중학교에서는 식당과 재정관리, 도서관운영에 이르기까지 학교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진보적인 교원들과 학생들의 민주주의적의사에 따라 순조롭게 풀어나가고있었다. 교내에서의 우리의 활동도 큰 구속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되였다. 이것은 육문중학교 학생들이 학교교무위원회와의 협동밀에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열매였다.

그런데 군벌들의 조종을 받고있던 반동교원들은 교직원, 학생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정착된 이 민주주의적질서를 조금도 달가와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이 질서를 파괴하고 학교운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들의 의사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였다.

교육청이 파견한 육문중학교 교원들가운데는 후각이 예민한 군벌의 앞잡이들이 있었다. 교무주임, 훈육주임, 체육주임과 같은 반동교원들은 모두 적의 특무기관에 매수된자들이였다. 그들은 군벌정권을 추종하는 지주, 관료출신의 보수적인 학생들과 불량청년들을 내세워 학생들의 사상동향과 혁명조직들의 움직임을 무시로 내탐하였다.

1928년 여름에 우리는 교내에서 일제의 강도적인 제2차 산동출병과 제남에서의 학살만행을 규탄하는 대중적인 항의운동을 매일과 같이 벌리였다.

산동출병은 다나까의 대중국외교의 시금석으로 불리우고있는 주요한 사건이다.

일본이 산동지방에 처음으로 출병한것은 1927년 5월 다나까 기이찌내각이 성립된 직후였다. 그때 장개석의 국민혁명군은 장작림의 봉천군을 추격하여 산동반도일대에 진출하고있었다. 다나까내각은 북벌군의 진격으로부터 자기들의 손때를 묻혀가며 길들인 장작림군벌을 옹호하기 위하여 일본인의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려순주둔군 2 000명을 청도에 파견하였으며 그후 다시 본토에서 2 000명의 증원군을 뽑아 산동지방에 파병하였다.

1차 출병으로 북벌이 정지되고 장개석이 산동지방 일본거류민들의 생명재산의 안전을 담보했기때문에 일본군은 그해 가을에 산동에서 철병하였다.

그러나 1928년 봄에 북벌혁명이 재개되자 파쑈적인 다나까내각은 2차로 출병을 결정하고 천진주둔군과 본토의 구마모도사단 5 000명을 동원하여 산동반도의 철도연선들을 차지하고 청도와 제남을 점령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장개석의 국민혁명군도 제남에 입성하였다. 두 나라 군대사이에는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일본점령군은 제남에서 수많은 중국인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국민당정부의 외교관도 일본군에 의하여 살해되였다.

3차에 걸치는 일제의 파렴치한 산동출병은 조중인민들속에서 배일감정을 폭발적으로 야기시키였다. 일본국내에서도 강력한 반대운동이 일어났으며 다나까외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본이 산동에 군대를 파견한 최종적인 목적은 만주와 화북지방을 중국에서 떼내여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데 있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탱점이 필요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장작림이였다. 장작림을 잘 길들이고 후원하면 만주를 쉽게 정복할수 있다는것이 일본사람들의 타산이였다. 제남에서 울린 총소리는 후날 중국땅에서 수천수만명의 인명을 앗아가게 될 야수적인 대도살을 예고하는 위험신호였다. 일제가 출병의 구실을 얻기 위해 자기들의 거류민까지 서슴없이 학살할 때 중화민족은 그들이 장차 자기들에게 어떤 재난을 강요하리라는것을 예감하였다.

우리는 일제의 침략정책과 국민당의 반역행위를 폭로하는 강연회, 웅변대회, 성토대회를 련이어 열고 학생들의 기세를 돋구었다.

반동교원들은 그것을 공산주의선전이라고 하면서 탄압의 구실로 삼았다. 그들은 도서관을 불의에 습격하여 진보적인 도서들을 회수해가지고 가서는 마치 큰 단서라도 잡아쥔것처럼 조선학생들을 다 퇴학시키라고 리광한교장에게 압력을 가하였다. 조선학생들은 공산주의주동분자가 아니면 《일본간첩》들이고 중국교원들을 적대시

하기때문에 그들을 그냥 두고서는 소란스러워 수업을 계속할수 없다는것이였다. 우파계렬의 학생들은 이에 장단을 맞추어 학교에 세워진 민주주의적질서를 제멋대로 위반하면서 진보적학생들을 모욕하고 교장과 선진적인 교원들을 비방중상하였다.

상월선생도 그자들의 첫째가는 공격대상이 되였다.

반동교원들과 그들의 조종을 받는 학생들의 무례한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두고서는 학문연구도 청년운동도 마음놓고 할수 없었다. 우리는 조직된 력량으로 반동교원들을 몰아내고 교내에 세워진 민주주의적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을 발동하여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은것들이였다.

첫째, 학생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할것.

둘째,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과목들에 대한 수업을 보장할것.

셋째, 진보적교원들과 교장에게 압력을 가하지 말것.

진보적인 교원들도 학생들의 요구조건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사회적힘을 개입시키겠다고 성공서에 압력을 가하였다. 반동교원들을 쫓아내라는 삐라와 격문들이 시내도처에 나붙었다. 그런 선전물들은 반동교원들의 숙소와 성공서에도 날아들었다.

육문중학교안에서 동맹휴학이 고조되자 시내의 다른 학교들에서도 이에 호응할 태세를 보이며 성공서에 압력을 가하였다.

성공서에서는 동맹휴학이 온 시내에 파급될 기미가 보이자 하는수없이 훈육주임을 비롯한 반동교원들을 파면시키고 우리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였다.

이것은 우리가 대중투쟁에서 얻은 첫 승리였다.

이 과정에 우리는 과녁을 똑바로 정하고 군중을 잘 조직동원하면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을 얻었다.

동맹휴학에서 첫 승리를 얻고나니 경험도 생기고 단련도 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년학생들이 우리를 더욱 믿고 따르게 되였다.

(다음호에 계속)

수 필

만경대의 나지막한 언덕길에서

얼마전 나는 조국을 방문한 해외동포들과 함께 만경대를 찾았다.

만경대고향집으로 걸음을 재촉하던 동포들은 나지막한 언덕우에 모셔져있는 모자이크로 형상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영상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주체14(1925)년 1월 22일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조국해방의 큰뜻을 품으시고 광복의 천리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이 숭엄하게 안겨왔다. 살을 에이는듯 한 찬바람에 두루마기자락을 날리시며 만경대의 나지막한 언덕길에 서계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나라찾을 굳은 결심이 력력히 비껴있었다.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느라니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길에 올랐던 나의 학창시절 추억이 가슴에 젖어들었다.

그때 나는 동무들과 함께 그이께서 걸으시였던 로정을 따라 평양의 만경대를 떠나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구장, 향산, 자강도 희천, 전천, 강계, 화평을 거쳐 량강도 포평까지 행군하였다.

1월의 날씨는 몹시도 맵짰다. 그러나 강추위도 폭설도 어리신 수령님께서 가슴속에 품으시였던 열렬한 애국의 뜻을 가슴에 안고 전진해가는 우리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대오의 앞길을 막지 못하였다.

그 길을 걸으며 나는 수령님의 념원이 꽃핀 사회주의 이 땅을 더욱 빛내여갈 충정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지난 세기 1920년대 수령님께서 걸으신 그 길은 멀고도 험준한 길이였다. 가야 할 천리중 500여리이상은 험산준령이였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그것도 그 길을 단신으로 용약 걸으신 수령님의 담대한 배짱과 의지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세계력사에는 제나름의 높은 리상과 목표를 안고 인생의 험난한 길을 떠난 위인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실 위대한 맹세를 안으시고 눈보라 천리길을 걸으신 위인이

금수산기슭에 피여난 꽃송이들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는 소년단원 두 형제가 가꾸는 포전이 있다.

대동강구역 청류초급중학교 1학년에서 공부하는 김무성과 대동강구역 청류소학교 4학년 학생 김무광은 여러해동안 그 포전에 자기들의 마음을 바쳐오고있다.

그들이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처음 발걸음을 옮긴것은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당시 평양청류소학교 2학년 학생이였던 무성이는 어느날 《소년신문》에 실린 한 기사를 읽게 되였다. 강원도 천내군의 소년단원들이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백도라지 2만포기를 정성껏 심었다는 내용이였다.

기사를 읽은후 무성이는 크게 감동되였다.

형제포전에 지성을 바쳐간다.

—우리 학생소년들을 그토록 사랑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꽃속에 묻히게 하는데 나의 마음도 바치고싶다!

그날 저녁 무성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신문을 읽은 소감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때 부모들곁에서 귀동냥을 하던 동생 무광이가 《형, 우리도 그들처럼 하자.》라고 말하는것이였다.

무성의 아버지 김광복과 어머니 김은순은 자식들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나날이 커가는 행복속에 철없이 자란줄로만 알았던 두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된 그들은 정말 기뻤다.

《훌륭한 생각을 했다. 아버지, 어머니는 너희들의 결심을 적극 지지한다.》

얼마후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는 크지 않은 형제포전이 생겨나게 되였다.

일찌기 있었던가.

그이께서는 천리길을 걸으시면서 조국의 재부를 략탈해가는 일제와 나라의 곳곳에 늘어나는 경찰, 감옥들을 가슴아프게 보시였으며 조선민족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일제를 쳐부시고 독립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가지시였다. 그이께서는 압록강가에 이르시여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시며 조국산천을 몇번이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시였다.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진정 이 맹세는 력사의 천리길과 더불어 조국과 민족, 력사의 갈피속에 력력히 새기신 위인의 거룩한 맹세였다.

력사의 그날 조국과 인민앞에 다지신 이 엄숙한 맹세와 더불어 장장 험준한 혁명의 길을 헤쳐오신 수령님!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한시바삐 되찾고 모든것을 영원한 조선의것으로 만드시려는 절세위인의 불타는 념원을 력사의 숫눈길우에 새기신 혁명의 천리길은 승리의 한길로 이어졌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그 길이 있었기에 일제를 때려부신 조국해방의 날도, 미제를 쳐부신 전승의 날도 있었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밝은 오늘과 휘황한 앞날도 있

무성이와 무광이는 이곳에 먼저 백도라지며 수국화, 이깔나무를 비롯한 수십여종의 꽃과 나무들을 심었다. 수업을 마친 후 그들은 손을 잡고 포전으로 달려와 물도 주고 북도 돋구어주면서 정성다해 가꾸었다. 눈이 오면 얼세라, 가물이 들면 시들세라 포전의 꽃과 나무들을 가꾸어가는 그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포전은 한해가 다르게 커졌다.

아버지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처음으로 맞이한 봄날, 무성이와 무광이는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포전에 또다시 수많은 꽃과 나무를 심었다.

그들은 포전을 찾을 때면 늘 금수산태양궁전을 향해 인사를 드리고 일손을 잡는것을 잊지 않았다.

두 소년의 마음에 떠받들려 생겨난 형제포전이 이제는 힘에 부치게 넓어졌다.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해 선생님과 동무들로부터 언제나 사랑을 받고있는 그들은 몇해전 6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자기들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올려 친필을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였다.

학교로 갈 때나, 집으로 돌아와서나 그 친필을 먼저 우러르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덕체자랑을 더욱 꽃피워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더 깊이 간직되군 한다.

그들은 여름방학기간에 백두산혁명전적지를 답사하였다. 무성이와 무광이는 백두산과 백두산밀영고향집, 삼지연대기념비를 비롯한 혁명사적지와 전적지들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의하여 마련된 백두의 혁명전통을 끗끗이 이어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와 문수물놀이장 등 강성국가건설의 불꽃튀는 전투장들에는 그들의 지성도 함께 수놓아져있다.

지난해 6월 무광이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에서 이렇게 토론하였다.

《저는 한평생 학생소년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한 해님으로 높이 모시겠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높이 받들어모시는 영원한 충정의 꽃송이로 자라나겠습니다.》

오늘 그들의 형제포전은 대동강구역 청류소학교 포전으로 되였다.

수많은 무성이, 무광이들이 바쳐가는 충정의 마음이 함께 깃들어 금수산기슭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꽃송이들이 피여나고 푸르른 나무들이 설레이고있다.

글 본사기자 러 해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김무성형제의 가정

는것이 아니겠는가.

해방된 땅우에 새 조선을 일떠세우시고 가렬처절한 반미대전의 포화를 헤치실 때에도, 전후복구건설에 이어 전설속의 천리마를 불러오시며 부강한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실 때에도 수령님께서는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실 때처럼 위대한 심장을 애국의 숭고한 뜻으로 불태우시며 언제나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였다.

하다면 광복의 천리길이 시작된 이 나지막한 언덕길이야말로 휘황한 사회주의조선의 첫길이 아니겠는가.

어버이수령님께서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은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위대한 계승의 천만리로 이 땅우에 줄기차게 이어졌으며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리키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대통로에로 이어져있다.

지금 우리 조국이 가고있는 이 길은 그 누구도 걸어본적이 없는 력사의 숫눈길과 다름이 없다.

인민사랑의 대화원을 꽃피워가시며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는 **김정은**원수님과 함께라면 험산준령이 나서고 세찬 바다가 앞을 막아도 두려움없을 우리 조국과 인민이다.

행복의 천리를, 만리를 가도 우리 인민은 만경대의 이 나지막한 언덕길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최향유

말발굽소리여, 인민의

오늘도 미림승마구락부에서는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들이고있다.

새파란 바탕에 달리는 말을 그려넣어 첫눈에도 알아볼수 있는 미림승마구락부행 전용뻐스들은 평양시 대동강구역 대동강동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부지런히 실어나르고있다. 뻐스에 몸을 실은 사람들뿐아니라 거리를 오가며 이 뻐스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함께 홍그러워지고있다.

미림승마구락부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첫눈에 《야—》하는 감탄을 터뜨리고야만다.

아득히 펼쳐진 잔디주로와 토사주로의 야외승마훈련장은 그결에 인공산과 인공폭포, 인공못과 함께 천막휴식장과 야외관람대도 끼고있어 더욱 이채를 띠고있다. 승마봉사소와 실내승마훈련장, 승마지식보급실, 피로회복원, 야외관람대는 물론이고 수의병원과 종축연구소 등 그 어느것 하나 손색이 없이 꾸려져있다.

62만 7 000여㎡나 되는 방대한 면적의 부지를 차지하는 승마봉사기지는 단숨에의 열풍속

가슴속에 더 높이 울려가라

에 인민군군인들이 불과 7개월남짓한 기간에 건설하였다.

인민들과 하신 약속은 …

지난해 10월, 완공을 앞둔 미림승마구락부에 나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이제는 인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게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을 수행하였던 현지일군은 원수님께서 승마봉사기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는 전기간 매 말씀마다에 인민이라는 두글자를 수없이 담으시였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은 우리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실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미림승마구락부건설에 기울이신 그이의 심혈에 대하여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보게 하였다.

때없이 흙먼지날리는 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시여 건설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심한 지도를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건물들을 통나무로 지은것처럼 실감이 나게 하려면 천연재료를 리용하여 외벽처리를 특색있게 하며 내부시공도 질적으로 해야 한다고, 실내승마훈련장에는 모래에 톱밥같은것을 섞어 두툼하게 깔아주며 란간을 나무로 해주어야 한다고, 기마수들이 말타는 자세를 보며 훈련하도록 대형거울을 세워주며 그뒤에는 옷걸이도 달아주도록 해야 한다고, 음향설비도 설치하여 봉사원들이 마이크로 사람들의 승마훈련을 지도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일일이 가르쳐주신 그이의 손길은 승마구락부의 그 어디나 미치지 않는 곳이란 하나도 없다.

사람들 누구나가 맵시있게 차려입은 승마복에도, 천막휴식장 통나무의자의 발받치개에도, 사람들이 말에서 쉽게 오르내릴수 있게 야외승마주로의 곳곳에 설치되여있는 시설물들에도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대로 어리여있다.

승마봉사시설들뿐아니라 말관리와 말마리수를 늘이기 위해 초기설계에 없던 수의병원과 종축연구소까지 갖춘 종합적인 대중승마봉사기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꽃피운 또 하나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멋쟁이승마수들의 기쁨

승마수들 그 누구를 보나 멋쟁이이다.

머리우에는 둥근 승마모를 눌러쓰고 몸에는 승마옷상의와 조끼, 바지를 차려입었으며 목구두를 신은 다리에 보호대를 두르고 손에 장갑까지 끼고 나서니 모두가 하나와 같다.

견마수마냥 봉사원들을 앞세우고 말을 타며 두볼을 붉히는 처녀들이 있는가 하면 언제 벌써 정을 붙였는지 말우에 올라타자마자 솜씨있게 박차를 가하며 주로를 누비는 청년들도 있다.

봉사원 김철혁은 승마운동에서 녀성들이 더욱 열성이라면서 처녀들도 처음에는 말이 무서워 겁을 내다가도 말우에 올라 얼마간 지나면 속도를 내여 달려보자고 재촉하군 한다고 말하였다.

우리도 말우에 올라앉았다.

《뚜걱—, 뚜걱—》말이 걸음을 옮기는데 우리의 옆으로 봉사원의 방조없이 말을 달리는 한 처녀가 있었다.

어느새 잔디주로를 한바퀴 돌고온 그(평양시 평천구역 리수영)는 말우에서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금의 감정이 어떤가?》

《대단히 좋다. 채찍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 달리고나니 아직 더 달리고싶은 충동을 걷잡을수 없다. 나는 운동이라면 오금을 못쓰는데 그가운데서 승마운동이 제일인것 같다.》

《여기에서 말을 탄지 얼마나 되였는가?》

《한달나마 되였다. 이제는 말을 타고 속보로 달릴수 있다. 얼마전에 승마지식보급실에서 지식을 넓혔더니 말을 다루기가 쉬워져 승마운동이 훨씬 더 재미있다.》

…

한편 토사주로에서 별스레 키가 큰 말(오를로브종)을 탄 한 청년이 구보로 달려보려다가 별안간 말에서 떨어졌다. 말고삐를 놓은 오른손으로 말의 궁둥이를 툭툭 쳐본것이 원인이였다.

그는 옷에 묻은 흙을 툭툭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봉사원이 그에게 달려와 상하지 않았는가고 하면서 토사주로에는 습기보존능력과 살균효과가 높은것으로 유명한 개성석비레를 소금과 섞어 깔았으므로 피부가 조금 긁히여도 성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해주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말과 친하려면 먼저 목을 쓰다듬어주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말우에 올라 훈련하던 멋쟁이승마수들이 말의 목을 쓰다듬어주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며 약속이나 한듯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는 장단맞

주로를 달리는 근로자들

실내훈련장에서의 승마운동

게 들려오는 말발굽소리와 어울려 장쾌한 메아리를 남기였다.

정녕 그것은 평범한 근로자들의 환희와 랑만에 넘친 웃음소리였다.

상상밖의 쾌감

승마운동을 하고난 사람들은 누구나 야외휴식터와 피로회복원에 들리지 않고는 못배긴다.

말을 실컷 타본 사람들은 야외휴식터로 향한다.

야외휴식터에는 칠보산에서 떠옮겨온것 같은 기암절벽, 인공폭포가 흐르는 인공산, 철갑상어와 룡정어들이 꼬리를 치고있는 인공못이 있는데 그 못가에는 몽금포모래까지 깔려있다.

잘잘한 쪼각돌들을 깐 걸음길을 걸으며 폭포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어지간히 지친듯 한 말을 사랑스럽게 쓰다듬으며 못가에서 물을 먹이는

승마수들의 얼굴마다에도 미소가 함뿍 어려있다.

천막휴식장안에서 목가적인 정서를 자아내는 통나무식탁앞에 세워진 통나무의자에 앉아 시원한 맥주를 한고뿌 쭉 들이킬 때의 그 상쾌함을 무엇이라 표현할수 있으랴.

말을 타고 달리던 긴장은 피로회복원에서도 한껏 풀수 있다.

이곳에는 운동실과 안마실, 목욕실이 특색있게 꾸려져있다.

승마기분에 붕 떴던 우리도 손님들속에서 제일 수요가 높다는 운동실의 의자식전신안마기에 앉아보았다.

앉자마자 수십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듯 세차고 부드럽고 길고 짧은것과 같은 가지가지의 충격과 자극이 온몸에 가해졌다. 몇분후에는 머리와 목, 잔등과 허리, 팔다리는 물론 손목과 발목, 손바닥과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온몸의 피로가 쭉 풀리였다.

즐거움은 백옥을 다듬어만든 침대인듯 흰빛을 뿌리는 수중초음파안마기들에 척 누워있는 목욕실안의 사람들속에서도 물결쳤다.

승마운동을 한후의 이러한 피로회복에 대해 사람들은 《상상밖의 쾌감을 맛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은 미림승마구락부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지난해 10월 준공식이 있은 날 밤에 있은 하나의 이야기가 오늘도 웃음속에 전해지고있다.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있는 유럽의 어느 한 나라

과학기술보급실

피로회복원의 운동실

관람석

수의병원 종합수술실

휴식장의 내부

피로회복원의 초음파수중치료실

대사(그는 다른 일로 하여 준공식에 참가하지 못하였다.)는 준공식에 참가하였던 친구에게서 미림승마구락부에 대한 설명을 전해듣고 그 아쉬움을 도저히 풀 길이 없었다. 밤이 늦었지만 그는 자기의 눈으로 당장 확인해보고싶어 그길로 미림승마구락부로 향하였다.

승마봉사기지의 여러곳을 돌아본 그는 이렇게 훌륭한 승마구락부는 처음 본다고 하면서 빨리 말을 타보고싶은 자기의 소망을 터놓았다는것이다.

오늘 조국의 인민들은 이처럼 크고 훌륭한 종합적인 대중승마봉사기지를 일떠세워준 나라의 은덕에 고마움의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인민소비품생산에 더 큰 힘을

— 식료일용공업성 국장 김희조와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오늘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식료일용 및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들의 기호와 요구에 맞는 여러가지 소비품생산을 정상화하고 갖가지 질좋은 새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국장： 소비품생산은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식료일용공업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는것과 함께 질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지난해에만 보더라도 평양기초식품공장, 강계기초식품공장을 비롯한 각지 기초식품공장들에서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는 한편 원료, 자재보장을 앞세워 간장, 된장을 비롯한 기초식품의 생산량을 늘이였으며 그 품종도 여러종이나 더 늘이였다.

뿐만아니라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는 일용품생산을 부쩍 늘여 맡겨진 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도 비옷, 사출장화를 비롯한 갖가지 일용품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최근 평양곡산공장, 대동강식료공장, 선흥식료공장에서는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필수품, 자기 단위를 상징하고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그리고 신의주화장품공장, 평양화장품공장에서는 세수비누, 치약을 비롯한 1차 소비품생산을 늘이는 한편 질경쟁을 힘있게 벌려 녀성들속에서 인기를 끄는 기능성화장품들을 련속 개발해내고있다.

기자： 오늘 창성군의 모범을 따라 각지 시, 군들에서는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면서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의 혁신은 경공업부문에서도 일어나고있다.

국장： 그렇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생산장성과 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한 각지 방직공장들의 직포공들은 실잇기시간을 단축하고 기대순회방법을 갱신하기 위해 노력하여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그들은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고도 성차지 않아 신입직포공들에게 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배워주면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선교편직공장, 강계편직공장에서는 애국의 열정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편직옷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기자： 현시기 인민소비품생산은 일련의 특징을 띠고있다. 그것은 이 사업이 종전에 비해 전군중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활발히 진행되고있는것이다.

국장： 옳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를 막론하고 기본제품생산과 생활필수품생산을 다 같이 밀고나가 맵시있고 쓸모있는 각종 소비품들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이 사업에서는 금속공업성, 화학공업성, 기계공업성이 모범을 보이고있다. 이곳 단위들에서는 소비품생산자들속에서 높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세소상품, 일용잡화를 비롯한 소비품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만도 전국경공업대회를 계기로 인민소비품생산단위가 훨씬 늘어났으며 여러가지 생활필수품들이 수많이 새로 개발되였다.

우리는 새해에도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생활상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기 위한 사업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다.

*　*　*

설명절과 조국인민들

우리 민족에게는 예로부터 년중 생산활동이나 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날들에 별식을 차리고 다채로운 행사와 놀이로 즐기는 풍습이 있다.

그가운데서도 가장 크고 경사로운 명절은 설명절이다.

설이란 새해(음력으로) 첫 명절을 이르는 고유한 조선말이다. 설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 첫 아침을 맞는 명절이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새로운 기분과 기대를 가지고 설명절을 맞는다.

우리 선조들은 일찌기 고대시기부터 설명절을 쇠여왔다. 그것은 부여에서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으로 즐기였다는 력사기록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설명절풍습은 삼국시기를 거쳐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로 이어지면서 보다 다양하고 풍부해졌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설명절풍습에는 차례(설날 새벽에 먼저 돌아간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것.)와 세배(섣달 그믐날이나 정초에 웃사람들에게 하는 설인사), 설음식대접(설음식을 일명 세찬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떡국, 찰떡, 설기떡, 절편 등과 여러가지 지짐류, 당과류, 수정과, 식혜, 고기구이, 과실, 술 등이 포함.), 민속놀이(대중적인 놀이인 윷놀이와 장기놀이, 어린이들의 연띄우기, 썰매타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바람개비놀이 등)가 있다. 오랜 세월 이어져온 설명절풍습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적인 생활풍습이 짙게 어려있다.

이러한 설명절풍습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설명절이 가까와오면 명절분위기를 돋구기 위해 조국땅 그 어느 곳에서나 여러가지 모양의 축등 등을 걸어놓는데 거기에는 《경축》, 《설명절을 축하합니다》 등의 글발들이 새겨져있다.

설날아침이면 조선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녀성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들과 함께 꽃을 들고 곳곳에 모셔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 태양상을 찾아 삼가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집안과 이웃의 웃어른들, 스승과 친척들에게 건강을 축원하거나 일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새해인사를 한다. 인사가 끝나면 성의껏 마련한 전통적인 설음식을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을 다같이 함께 나누면서 명절을 즐긴다.

설명절을 특색있게 장식하는 것은 민속놀이이다. 특히 설날의 윷놀이는 어른, 아이할것없이 누구나 다 즐길수 있는 놀이로 되고있다. 오늘날 윷놀이는 지난날의것에 함정, 후도가 새롭게 첨가되고 말판우의 말도 4개가 아니라 10개 혹은 15개를 쓰도록 함으로써 더욱 흥겹고 재미있는 놀이로 되고있다. 이밖에도 남자들은 장기를, 어린이들은 평양의 **김일성**광장을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 꾸려진 공원과 유원지들에서 연띄우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바람개비놀이, 로라스케트타기, 썰매타

다양한 민속놀이로 설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학생소년들

설명절과 떡음식들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잡지 《금수강산》 민족의 향기란이 새해의 첫 페지를 펼쳤습니다.

정월초하루 설명절날 동포 여러분의 가정들에서 피여나게 될 행복의 웃음꽃이 마치도 우리의 이 페지에 먼저 실리는것만 같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설명절을 이채롭게 하여주는 명절음식들가운데서 떡음식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로부터 조선사람들은 설명절음식준비에 많은 품을 들이였습니다.

특히 녀인들은 섣달그믐날 밤이 깊도록 음식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음식들을 설명절날 아침 가족, 친척들, 세배하러온 손님들과 함께 드는것은 다른 날에는 맛볼수 없는 류다른 즐거움이였습니다.

설날에는 여러가지 떡과 지짐, 당과류, 수정과, 식혜, 고기구이, 과실, 술을 마련하였는데 특히 떡국은 설음식의 상징이였습니다.

설날에 만들어먹는 떡은 주로 흰떡이였는데 깨끗하다는 뜻에서 고물을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몇가지 떡음식만들기를 보기로 합시다.

설기떡, 찰떡, 절편, 떡국을 만들기 위하여 흰쌀과 찹쌀을 준비합니다.

먼저 떡을 만들기 위해 일정한 량의 흰쌀과 찹쌀을 각각 씻고 일은 다음 5~6시간 불구었다가 물기를 찌워 가루를 봏습니다. 혹은 불군 쌀을 망에 갈아 물을 찌워 떡가루로 쓰기도 합니다.

우선 설기떡을 만들어봅시다.

설기떡은 흰쌀가루와 찹쌀가루를 조화롭게 섞어 시루에서 김으로 익혀낸 떡입니다. 이 떡은 구수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맛이 부근부근합니다.

설날의 흰설기떡은 명절음식상을 깨끗이하는데서도 으뜸입니다.

기 등을 하면서 유쾌하게 보내고있다.

뿐만아니라 설명절날 평양의 유명한 옥류관과 청류관을 비롯한 각곳의 급양봉사망들에서는 꿩고기, 닭고기를 비롯한 갖가지 원자재들로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여러가지 설명절음식을 특색있게 차려놓고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그리고 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과 전국적인 청소년학생들의 민속놀이경기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경축공연들과 경기들이 진행된다. 이것은 설명절의 분위기를 한껏 돋구어주는 새로운 풍경으로 되고있다.

유구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 전해지고있는 우리 민족의 설명절풍습은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국

이채를 띠는 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

떡국

송편

설기떡

찰떡

설기떡을 만들자면 흰쌀가루와 찹쌀가루를 2:1의 비률로 섞어서 연하게 간을 맞춘 물을 부어가며 구슬구슬하게 추겨놓은 다음 고루 비벼서 성근채로 칩니다. 다음 가마에 시루를 앉히고 그안에 가제천같은것을 폅니다. 다음 떡감을 골고루 뿌리고 김을 올려 익힙니다. 떡이 다 익으면 들어내여 식힌후 적당히 썰어 접시에 담습니다.

찰떡은 불군 찹쌀을 김에 쪄내여 떡판이나 절구같은데서 친 떡입니다.

찹쌀가루로 찰떡을 만드는것이 손쉽고 맛도 좋습니다.

다음은 절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봅시다.

흰쌀가루에 간을 약간 맞춘 끓는물을 두고 익반죽한것을 시루에 안쳐 김을 올립니다. 김이 다 오르면 15분정도 뜸을 들이고 흰떡을 만듭니다.

절편이 쫄깃쫄깃한 맛이 살아나게 하자면 반듯한 상우에서 잘 치대여야 합니다.

흰떡을 약 0. 8cm의 두께로 민 다음 길이 5~6cm, 너비 4~5cm크기로 썰거나 직경 8~10cm크기로 동글납작하게 빚어 꽃무늬를 찍습니다. 절편에 참기름을 연하게 바르면 씹는 맛이 쫄깃쫄깃한데다 고소한 맛까지 곁들여지게 됩니다.

절편을 빚고 나머지로 긴 가래떡을 만든 다음 떡국대를 썰어놓습니다.

그것을 찬물에 슬쩍 헹구어 물기를 찌운 다음 끓는 꿩고기국물이나 닭고기국물에 넣어 3~5분정도 끓입니다.

끓인 떡국은 대접에 담고 그우에 파, 후추가루, 깨가루, 김가루 등을 뿌립니다.

이렇게 떡음식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펜을 놓으려니 문득 두해전 고국을 방문한 재로씨야 김 웨네라동포가 남긴 말이 떠오릅니다.

그는 평양고려호텔에서 설기떡을 먹어보고 몇십년전 자기가 어릴적에 어머니가 만들어주었던 그 떡맛과 정말 꼭 같다고 하며 조선사람의 피는 속일수 없다고 감격해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역만리 멀리에서 살아도 조선민족의 넋과 전통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국애족의 출발점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설명절날 첫 아침 이채롭고 풍성할 음식상을 마주하고 모두가 사업에서의 성과와 건강, 행복을 축원하여 축배를 드시기를 바라며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장철구평양상업대학 교원 리광훈

방문기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는 사람들

— 평양시 룡성구역 은하동 67인민반 김창배가정을 찾아서 —

어느 일요일, 우리는 새로 일떠선 은하과학자거리를 찾았다. 새 거리의 살림집들에 과학자들이 입사를 한 때로부터 몇달이 지났어도 아직도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1 000여세대의 살림집과 학교, 병원, 탁아소, 유치원 등 10여개의 공공건물들, 아동공원, 소공원들을 비롯한 각종 편의봉사시설들을 갖추고 특색있게 일떠선 은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았다.

볼수록 거리형성부터가 독특했다.

우리가 거리의 3호동앞을 지나는데 어데선가 손풍금소리와 함께 노래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는것이였다.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을 이어주시며
인민위한 한길만을
　　언제나 걸으십니다
…

노래소리에 이끌려 우리가 닿은 곳은 3호동 3현관 1층 1호집이였다. 거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살림집 주체102(2013)년 9월 8일》이라는 현판이 걸려있었다.

우리가 초인종을 누르자 일흔이 넘은듯 한 로인이 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가 찾아온 취지를 듣고는 자기가 이집 세대주라고 반가와하면서 우리의 손목을 잡아 이끌었다. 휴식일이라 가족이 모여 손녀의 노래를 듣고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정서를 깨치지 않으려고 조용히 방에 들어섰다.

TV와 신문지면에서 많이 보아온 은하과학자거리의 살림집이였지만 정작 와서 보니 정말 멋이 있었다.

넓고 시원한 공동살림방을 비롯하여 부모방, 자식방, 서재 그리고 특색있는 구조의 부엌 등 그 어느 곳이나 생활에 편리하게 꾸려져 있었다.

새집에서

우리가 자식방, 부모방을 거쳐 서재에 들어서는데 집주인이 말했다.

《정말 꿈만 같소.

그것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집에, 그이의 숨결이, 그이의 체취가 그대로 어려있는 이 집에 온 가족이 행복의 보금자리를 펴게 되리라고 어디 생각이나 해보았겠소. …》

그는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는 남편을 대신하여 안해 리은숙녀성이 두눈을 슴벅이며 뒤를 이었다.

《집을 무상으로 받은것만도 고마운데 빈몸으로 들어와 살수있게 이렇듯 책상과 책장은 물론 침대랑 많은 가구들에 부엌세간까지 일식으로 갖추어주시였으니 경애하는 원수님께 무슨 말로 고마움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서재에 놓여있는 책상을 비롯하여 집안의 모든것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러는 우리에게 김창배로인은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의

뜻을 그대로 이으신 우리 원수님께서 과학자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이렇듯 사랑을 더해주시니 가슴만 뜨거워질뿐이요. 그래서인지 요새는 일을 해도해도 힘든줄을 모르겠소. 아무리 일을 한다 해도 그 은혜에 보답이나 하겠는지…》

로인의 막내아들 김동철은 한생을 과학연구사업을 해온 아버지가 이렇게 크고 훌륭한 집을 받아안았으니 생각되는바가 많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4월 15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우리 아버지와 같은 과학자들뿐아니라 멀지 않아 우리 인민모두가 누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막 벅차오름을 금할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말에 화답이라도 하듯 손풍금에 맞추어 그의 딸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친근하신 그이 모셔
　　강산은 따뜻하고
영명하신 그이 계셔
　　미래는 창창합니다
…

고마움과 행복의 정을 금치 못하며 터치는 그들의 노래소리를 뒤에 남기고 우리는 그의 집을 나섰다.

어둠이 깃드는 은하과학자거리의 살림집들 창가마다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빛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우리는 쉬이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대철

《이 땅에선 마음껏

— 세계유술선수권보유자 설경의 어머니

지난해 9월 어느날 아침 6시 30분경, 천경숙녀성은 전화종소리에 놀라 수화기를 들었다.

전류를 타고 맏딸 설경의 책임감독 박금성의 흥분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예?! 우리 설경이가 세계유술선수권을 획득하였다구요?!》

너무나 놀라운 소식에 접한 그는 한동안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그러는 그의 눈앞에는 《어머니, 있는 힘껏 해보겠습니다.》라는 소박한 말을 남기고 조국을 떠나간 사랑스러운 딸의 모습이 안겨왔다.

그는 설경이가 유술과 함께 걸어온 나날을 조용히 되새겨보았다.

10여년전, 가슴속에 꿈도 많은 쌍태머리소녀였던 11살의 설경이가 조일룡감독에게 이끌려 유술계에 들어섰다.

평양기계대학체육단 양성조 유술선수가 된 설경은 조일룡감독에게서 유술의 기초기술동작 등을 하나하나 배워나갔다. 조일룡은 첫 제자인 설경의 육체기술적능력을 하루빨리 높여주기 위해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기울이였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설경의 생활을 극진히 돌보아주었다.

천경숙녀성은 설경이가 14살되던 해 국내선수권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동메달을 따가지고 왔을 때가 제일 기뻤었다. 딸의 그 동메달이 너무 귀해서 닳도록 쓸어보고만 싶은 심정이였다. 한것은 그가 딸의 첫 메달이 비록 동메달이여도 앞으로 은메달이 되고 금메달이 될것이라는것을 처음으로 믿게 되였기때문이였다.

정말로 그때부터 설경이에게는 한해가 다르게 하나, 둘 메달이 늘어났다. 설경이 17살되던 해 봄에는 평양기계대학 경공업기계공학부 식료기계학과에 입학하였다. 대학생언니, 오빠들처럼 언제면 대학생교복을 입고 손에는 책가방을 들고 강의실에 들어설수 있을가 하면서 행복한 래일을 그려보군 하던 설경이였다.

온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처녀대학생 유술선수 설경이에게 축하의 꽃보라를 뿌려주었다. 그에게 있어서 과학의 세계는 참으로 흥미진진하였다. 하건만 그는 유술훈련장을 하루도 떠나지 않았다. 해빛밝은 교실에서 하루강의를 마친후 언제나와 같이 땀에 절은 유술복을 입고 훈련장으로 들어설 때면 조일룡감독의 미더운 눈길이 설경이에게 와닿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설경의 집에서였다. 설경은 거울앞에 앉아 느닷없이 앞에 놓인 어머니의 목걸이를 자기 목에 걸어보았다. 처녀시절에 이르렀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그러나 딸의 류다른 행동거지를 본 어머니는 그를 호되게 질책하였다.

《설경아, 지금 무슨 헛된 생각을 하고있니? 자기를 애지중지 키워준 나라의 은덕을 안다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온 세상에 공화국기발을 날리는것이 이 나라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느냐?》

어머니의 말은 설경을 정신

꿈을 꾸라!》

천경숙녀성의 추억속에서 —

차리게 하였다. 그는 오직 금메달을 위해 일분일초라도 더 훈련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시한번 가다듬게 되였다. 그리고 학습과 훈련에서 언제나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유술훈련장에서 강의시간에 배운 력학적원리들을 되새기며 새로운 훈련방법과 경기방식을 찾아보군 하였다. 그럴 때면 여러 감독과 선수들은 《저 설경이가 꼭 큰 일을 치겠다.》고 말하였다.

전도가 유망한 선수로 지목되여있던 그가 어느해 국내선수권대회에서 2위를 하게 되였다.

그 일을 두고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조일룡감독이였다. 다음날 이른아침 설경의 어머니는 감독의 전화를 받게 되였다. 감독의 목소리는 피곤에 몰려있었다.

《설경이어머니, 설경이는 반드시 세계무대에 나가 공화국기를 날려야 합니다. 저는 설경이가 2등에 만족하고있을가봐 두렵습니다. 돈 한푼내지 않고 마음껏 배우며 자기의 꿈을 꽃피우고있는 우리 체육선수들에게는 2등이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직 1등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독의 마지막말이 될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그날 조일룡감독이 유술훈련장에서 숨을 거두었던것이다. 그때 그의 나이는 37살이였다.

설경은 눈물을 삼키며 어머니에게 한 감독의 말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였다.

—1등, 여기에 나의 꿈이 있고 감독의 꿈도 있으며 우리 어머니의 꿈도 있다. 그 꿈을 위하여 뛰고 또 뛰자. 세계의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애국가》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리.

그는 분발하여나섰다. 자기앞에 두배, 세배의 훈련강도를 요구하였다. 하건만 그에게는 쓰러질 권리가 없었다. 2012년 세계컵녀자유술경기대회 70kg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데 이어 그는 2013년 세계유술선수권대회 78kg급 경기에서 또다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그의 경기성과는 세계유술계를 놀래웠다. 기성관례에 따른다면 중량급 경기에서 아시아선수가 우승한다는것은 상상도 못할 기적이였던것이다.

영국의 어느 한 인터네트에는 《조선의 설경선수, 공격과 방어에서 군동작이 하나도 없다.》고 평한 기사가 올랐다.

온 나라의 축복속에 밝게 웃음짓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천경숙녀성의 가슴속에는 인민들모두의 소중한 꿈을 키워주고 꽃피워주는 은혜로운 조국에 대한 고마움의 감정이 가득차올랐다.

그의 심장에서는 이런 웨침이 터져올랐다.

조국에서는 설경선수를 뜨겁게 맞이하였다.

《이 땅에선 마음껏 꿈을 꾸라!》

어디선가 울려나오는 은은한 노래선률이 천경숙녀성의 가슴을 더욱 설레이게 하였다.

그는 조용히 따라불렀다.

…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붓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빛나라 이 조선 인민공화국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

세월의 흐름속에 묻어둘수 없다

—고고학자가 되기 전에 열렬한 애국자가 되라.

이를 좌우명으로 삼고 력사연구에 한생을 바쳐가는 한 학자가 있다.

그는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고고학강좌 연구사 교수, 박사 남일룡이다.

《고조선시기의 성곽들에 대한 전면적해명을 비롯하여 선생님이 이룩한 연구성과들은 고고학분야에서 무시할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있습니다.

그 모든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민족의 력사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고 빛내이려는 선생님의 애국심과 민족애를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강좌장 리영식의 말이다.

주체82(1993)년, 조국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와 뜨거운 조국애에 의해 신화로만 전해져오던 단군이 실재한 인물로 고증되는 고고학적사변이 일어났다. 단군릉발굴을 통하여 우리 겨레는 민족의 원시조를 찾게 되였으며 조선민족은 5 000여년전에 이 땅우에 동방의 강국 고조선을 일떠세운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이라는 력사적사실이 확증되게 되였다.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반만년의 민족사가 새롭게 정립된데 맞게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일대에서는 단군조선국가성립을 전후한 시기의 유적유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이 진행되였다. 그 사업에 남일룡도 참가하게 되였다. 그에게는 평양일대에서 고조선시기의 수도성을 찾는 연구과제가 나섰다.

단군릉과 단군유골이 평양부근에서 발굴된 시점에서 고조선의 수도성이였던 왕검성이 오늘의 평양에 있었던것은 의심할바 없었지만 그는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한것은 지방들에서는 여러 토성을 찾아냈지만 평양에서는 고조선의 수도성으로 볼수 있는 토성을 확정하지 못하였으며 명백한 문헌자료도,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선배도 없었다. 오직 자기의 지식과 노력으로 해결하여야 했다.

그는 먼저 이미 발굴된 봉산군 지탑리토성, 남포시 성현리토성 등에 대한 료해를 다시하였다. 그 과정에 고대시기의 토성들이 일반적으로 벌과 강, 야산을 낀 지대 등에 위치하고있으며 여러가지 흙으로 막쌓은 축조방법의 특징도 찾아내게 되였다.

《조선고고학》에 대해 강의하고있다.

이에 기초하여 그는 대담하게 평양시 대성구역 청암동에 있는 토성을 발굴할것을 결심하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청암동토성은 고구려시기의 토성으로 알려져있었다. 일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강점시기 청암동토성을 발굴하면서 고구려시기의 유물들이 나왔다고 하여 토성을 고구려시기의것으로 단정해버리고말았던것이다. 그 랑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학계에 굳어져있었다.

그는 그것을 믿을수 없었다.

문득 그의 눈앞에는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에서 고고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축적해가던 나날인 주체63(1974)년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를 받들고 대학교원들과 함께 동명왕릉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사업에 참가하던 일들이 떠올랐다.

발굴과정에 그들은 릉안에서 최대의 권력자가 아니고서는 사용할수 없었던 금속장식품들과 보요들, 불교에서 신성화되던 련꽃무늬로 장식한 벽화 등을 찾아내였다. 유적유물들은 당시 동명왕릉과 관련한 여러가지 설을 타파하고 릉이 고구려시조 동명왕의 무덤이라는것을 확증하였다. 이것은 력사학계를 뒤흔들어놓았으며 그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선조들이 창조한 유적과 유물들을 발굴하여 력사를 밝히고 빛내이는 고고학에 대한 애착이 자리잡게 되였으며 그 길에 자기의 한생을 바쳐갈 결심이 서게 되였다.

—우리 민족사에 공백이 있을수 없다. 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력사의 이끼속에 깊이 덮여 말 못하고있는 고조선의 수도성을 찾아내여 온 세상에 소리높이 웨치게 할테다.

둘레만 해도 3 450m로서 그 어느 토성보다 규모가 큰 청암동토성발굴사업은 쉽지 않았다. 날과 달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토성의 성분은 여전히 고구려시기의 축조방법을 말해주었고 토성안에서 발굴된 금분으로 그린 건물벽화를 비롯한 유물들 역시 고구려시기의것이였다.

많은 사람들이 공연한 수고를 하는것 같다고 말할 때에도, 취장염으로 신고하는 안해를 자식들에게 맡기고 문밖을 나설 때에도 그는 락심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

어느날 그는 고구려토성아래에서 그 이전시기에 쌓아진것으로 보이는 진흙층을 보게 되였다. 파고들어갈수록 거기에서는 고대시기의 고유한 막쌓기축조방법으로 쌓은 토성과 팽이그릇, 돌도끼쪼각을 비롯한 고조선의 성립을 전후한 시기

남일룡

에 해당되는 유물들이 나왔다.

이러한 고고학적발굴자료는 토성이 단군조선시기에 처음으로 축조되고 고구려시기에 여러번 개축리용된 성이라는것과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이 료동지방이 아니라 평양에 있었다는것을 고증하게 하였다. 이것은 평양이 조선민족의 발상지일뿐아니라 첫 고대국가인 고조선의 수도로서 유서깊은 력사를 가지고있음을 더욱 실증할수 있게 하였다.

그는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평양의 고대토성에 대하여》, 《평양일대 고대토성의 축조년대》, 《평양일대 고대토성의 특징에 대하여》, 《대동강류역 고대토성의 성격》, 《평양일대 고대토성의 축조형식과 성방어체계》 등 가치있는 론문들을 집필하여 고대토성에 대한 전면적인 해명을 하였다. …

강좌장으로 사업하는 나날에도 그는 고려의 왕궁 대화궁터와 고구려첨성대터, 대성동무덤떼, 룡악산무덤떼 등 여러 유적유물들을 발굴하여 민족의 력사를 고증하고 새롭게 확립하는데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는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이지만 그는 여전히 바쁜 시간속에 살고있다. 학생들에 대한 강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협회 부위원장의 임무, 남포시 온천지구에서 신석기시대의 소금생산유적발굴 등이 그로 하여금 연구사업을 멈추지 않게 하고있다.

민족의 력사를 파고들며 흘러온 40년, 오늘도 그는 그 나날을 자부와 긍지에 넘쳐 추억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전시에 리용하신 사적물들

참관기

력사의 증견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3)

조국과 민족의 분렬이 언제부터 누구때문에 시작되였는가를 다시한번 느낀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2층에 이르렀다.

《여기서부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진행되였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주요작전들과 전투들을 비롯하여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자료들을 보게 됩니다.》라는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내각비상회의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영상사진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오래전부터 침략전쟁준비를 다그쳐오던 미제는 리승만괴뢰도당을 사촉하여 주체39(1950)년 6월 25일 이른새벽 38°선 전역에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불의의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강사는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각비상회의를 소집하시고 전체인민이 총동원되여 적들의 무력침공을 좌절시키고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가 침략자들을 소탕할데

대전해방전투전경화의 일부

대하여 호소하시였다고 하면서 당시의 사적자료들과 전시물들에 대하여 해설해주었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의 제1계단부터 제4계단(미제와 리승만괴뢰군대의 무력침공을 좌절시키고 신속히 반공격으로 넘어가 적들을 락동강계선까지 몰아냈던 시기, 미제가 락동강전선에서 《총공세》를 감행하는 한편 인천지구에서 대규모적인 상륙작전을 감행하고있는데 대처하여 적들의 진공속도를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쟁취하여 인민군주력부대들을 구출하고 새로운 후비부대들을 편성하여 강력한 반공격집단을 형성하며 일시적인 전략적후퇴를 보장하던 시기,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적의 유생력량을 대량적으로 섬멸하면서 적들을 38° 선 이남까지 구축했던 시기,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으로 이미 차지한 계선을 완강히 유지하고 적을 끊임없이 타격소멸하는 한편 시간을 쟁취하여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고 후방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한 시기)까지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독창적인 전법들, 조국을 지켜 무비의 영웅성과 용감성을 발휘하여 용감하게 싸운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사적물들과 전시물들을 돌아보았다.

서울해방전투반경화

즉시적인 반공격과 포위섬멸전으로 전쟁이 일어난지 3일만에 적의 아성을 해방한 서울해방작전,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여 미제의 멸망을 알리는 서막을 열어놓은 대전해방작전,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집행에 대한 인민군용사들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남김없이 시위한 락동강도하전투, 력량상 수백배에 달하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영웅적희생정신과 고상한 전투도덕적품성을 발휘한 월미도방어전투 등은 인민군군인들이 지녔던 정신력과 위력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신묘한 령군술과 주체전법의 불패의 생활력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준 반면에

포항의 16명용사를 형상한 반경화를 돌아보는 참관자들

월미도방어전투반경화

침략자들의 취약성을 세상에 폭로한 장진호반전투,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전법과 조선인민군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보여주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준 1211고지방어전투 등을 비롯하여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작전들과 전투들은 당시의 전투상황을 구체적이면서도 생동하게 형상한 대형전경화, 각이한 주제의 반경화들, 작전사판들, 전광판들에 그대로 어려있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전법(갱도전,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땅크사냥군조운동, 기동고사포병중대활동, 저격수활동, 독립중기조활동, 습격전…)을 높이 받들고 영용하게 싸운 해군, 공군, 포병, 땅크병 등 군종, 병종별에 따르는 인민군용사들의 모습과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싸운 후방인민들의 투쟁기상을 보여주는 전시물들과 각종 사판들, 반경화를 비롯한 모든 사적자료와 전시물들은 참관자들로 하여금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하게 하였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하나하나의 전시물들을 돌아보는 참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여 준엄한 전화의 그 나날에도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영예가 고수되고 더욱 빛날수 있었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어려있었다.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고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아갈 때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다는 승리의 신심에 넘쳐있는 참관자들과 함께 우리는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높이 조선전선에 달려나와 인민군대와 함께 침략자들을 물리친 중국인민지원군용사들의 투쟁자료들이 전시되여있는 중국인민지원군관과 이전 쏘련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이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는 국제적지지성원관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이어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승리관을 찾았다.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입으셨던 원수복(주체42(1953)년 2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 수여)과 그이께서 리용하시였던 승용차를 비롯한 여러 사적물들, 친위중대에 대한 자

공화국영웅홀

공군관의 일부

조국해방전쟁 제2계단관의 일부

료들과 정전담판과 관련한 자료들 그리고 조국해방전쟁승리를 경축하는 자료들을 비롯하여 여러 전시물을 돌아보았다.

주체42(1953)년 7월 28일 전승의 광장에서 전체 조선인민에게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영상과 육성이 수록된 당시의 록화물을 보면서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진정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의 승리, 탁월한 전략전술과 독창적인 전법의 승리, 그이의 손길아래 자라난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였다는것을 더욱 깊이 절감하였다.

《여기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미제의 패망상을 보게 됩니다.》라는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들어선 곳은 미제의 패배관이였다.

방에 들어서자 강사는 머리를 푹 숙이고 서있는 미군장군을 형상한 랍상을 가리키면서 《〈속전속결〉로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을 강점하겠다고 장담하던 미 제1해병사단장 스미스란자는 저렇게 〈무덤장군〉의 신세가 되고말았습니다.》라고 말하며 특색있게 꾸려진 전시관의 전시품과 자료들에 대하여 해설해주었다. 전화의 그날 침략자들의 말로를 보는듯 참관자들의 통쾌한 웃음소리와 함께 또다시 침략자들이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이 땅에 누워있을 자리도 없이 영영 쓸어버리고야말 승리자들의 기상이 전시관에 차넘치였다.

이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용감하게 싸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영웅적위훈이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는 공화국영웅홀과 대전해방작전전경화관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준엄한 전화의 나날의 영웅전사들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래일의 승리자가 될 일념에 차넘쳐있는듯 싶었다.

우리의 참관은 계속되였다.

글 본사기자 김대철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해설을 듣고있는 참관자들

국제적지지성원관의 일부

청년들의 앞길은 더욱 밝다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항준과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조국의 청년들은 당과 인민의 아낌없는 사랑과 믿음속에 나라와 민족의 양양한 앞날을 열어나가는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이름떨치고있다.

리항준: 오늘 조국의 청년들은 강성국가건설장들마다에서 청춘의 지혜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청년돌격대원들은 1호발전소의 조기조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한데 이어 2호, 3호발전소건설도 동시에 추진시켜 발전소건설을 빨리 끝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애국의 구슬땀을 흘려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서두수의 흐름소리 유정하던 골안에 산악같은 언제들이 솟아오르고 산악을 꿰지르며 물길굴들이 뻗어가고있다.

이들만이 아니다.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장과 마식령스키장건설장, 세포등판개간전투장 등 강성국가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 애국자들의 앞장에는 바로 청년들이 서있다.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와 우리 식 CNC기술의 개발을 비롯한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들도 청년과학자들이며 세계의 창공높이 공화국기를 휘날리고있는 인재들과 체육명수들도 다름아닌 청년들이다.

이런 청년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조국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다.

기자: 조국에서는 청년들모두가 나라의 대들보로 자라나고있다. 그것은 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청년문제를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청년중시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여 청년운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기때문이다.

리항준: 옳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청년들을 혁명의 전위로 보시고 그들을 항일대전과 반미대전을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맨 앞장에 내세워주시였으며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국청사에 청년이라는 글발을 력력히 새겨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청년들을 사랑하라!》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를 펼치시였다.

청년들에 대한 그이의 사랑과 믿음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영광스러운 명칭과 친히 안겨주신 혁명의 홰불봉, 뜻깊게 제정된 청년절에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하기에 조국의 청년들은 청년영웅도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등 기념비적창조물들에 청년이라는 이름을 긍지롭게 새겨올수 있었다.

기자: 오늘 조선청년운동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청년중시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리항준: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첫 진군길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의 관심과 축복속에 청년절을 성대히 경축하도록 하시고 멀리 전선에서 청년들에게 사랑의 축하문도 보내주신 분이 우리의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강성국가건설장들을 끊임없이 찾으시여 청년들의 심장마다에 애국의 열정과 단숨에의 기상을 안겨주시고 국제무대에서 조국의 명예를 떨친 청년체육인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인 청년들을 총진군대오의 척후대로 하여 사회주의부강조국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원수님의 이 친필서한은 청년들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다. 그 사랑과 믿음이 있어 조국의 청년들은 오늘의 강성국가건설에서 자기의 청춘시절을 창조와 혁신, 위훈으로 아로새겨가고있는것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청년들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 * *

로련 싸할린주 유쥬노—싸할린스크시 레닌거리 390—1
리건일삼촌 앞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삼촌, 안녕하십니까.

머나먼 타향에서 언제나 조국을 그리며 계실 삼촌들과 고모님들을 비롯한 일가친척들모두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형제들의 이름으로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고장에 온 《금수강산》 기자선생을 만나 이렇게 집소식을 전하게 되였습니다.

삼촌, 그사이 앓지는 않으시였는지, 또 집식구들과 작은삼촌들 그리고 고모님들모두가 잘 계시는지… 모든것이 궁금합니다.

재작년 8월에 삼촌들을 만나보고 오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진들을 펼쳐놓고 그곳 소식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군 한답니다.

그래서 제손으로 한번 편지를 보내고싶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신 몸으로 자식들과 손자들의 뒤시중으로 날과 달을 보내고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편지를 쓴다니까 자기 소식부터 먼저 전하라고 야단입니다. 아버지가 앓으시던 병은 조국의 무상치료제의 혜택으로 전보다 많이 호전되여 건강이 퍽 좋아졌습니다. 잘 쓰지 못하던 손으로 이제는 못하는 일이 없답니다.

저희들도 모두 건강하여 큰 공장, 기업소의 직장장, 부직장장으로서 자기 맡은 일을 잘하고있습니다.

저의 집에서도 모두 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 광성이는 높은 성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에 있는 중앙대학의 대학생이 되였답니다. 온 집안의 자랑인 오빠처럼 대학생이 되겠다며 딸 련봉이도 얼마나 공부에 여념이 없는지 얼굴을 마주볼새가 없습니다.

둘째동생 철진이네 쌍둥이들인 련송이와 현성이는 벌써 소학교 4학년 학생이 되였습니다. 련송이는 외국어공부를 잘해서 학교와 시에서 진행되는 외국어학과경연에서 우승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으며 손풍금도 잘 탄답니다. 현성이도 외국어공부에서는 누나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셋째동생 광진이네 딸 련경이도 유치원생이 되여 바이올린을 배우고있는데 제법입니다.

그 재롱스러운 모습을 볼 때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떠올라 가슴을 적셔주는것은 해외에 계시는 삼촌들과 고모님들 생각입니다. 삼촌들과 고모님들이 더욱 그립고 일가친척이 모두 모여 행복의 기쁨을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가 하는 심정입니다.

저와 우리 형제들은 고마운 조국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원대한 구상대로 더욱 살기 좋고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오늘의 벅찬 현실에 몸을 잠그고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렵니다.

삼촌, 우리는 조국에서, 삼촌들과 고모님들은 해외에서 나라의 부강번영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합쳐갑시다.

삼촌, 이제는 환갑나이도 훨씬 지나셨는데 건강에 류의하여주십시오.

삼촌들과 고모님들과의 뜻깊은 상봉의 그날을 그리며 오늘은 이만 쓰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새해 삼촌들과 고모님들 가정의 행복을 바라면서 다시한번 머리숙여 인사를 보냅니다.

저의 가족입니다.

자강도 희천시 매봉동 43인민반
맏조카 리남진 올림

민족성이 꽃피는 화원에서

송미숙

광명식당에서 만든 고유한 조선민족료리의 맛을 본 많은 손님들은 오래도록 그 맛을 잊지 못하며 즐겁게 추억한다.

《나는 유엔기구성원으로서 사업상관계로 인민대학습당에 자주 오군 합니다. 그때면 의례히 광명식당을 찾군 하는데 료리의 맛이 참 괜찮습니다. 여러가지 료리중에서도 조선료리가 독특합니다.》, 《조선에 와서 배운 말가운데서 국수와 김치라는 말은 정말 잊을것 같지 못합니다.》, 《광명식당의 친절한 봉사성과 높은 료리질은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

총련금강산가극단의 한 배우는 이렇게 말하였다.

《민족의 넋이 살아 숨쉬는 내 조국의 료리가 제일입니다.》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송미숙지배인의 눈앞에는 10년전의 일들이 떠오르군 한다.

주체93(2004)년 광명식당 지배인으로 임명받은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당시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봉사와 경영활동에 대한 경험도 지식도 부족했고 식당은 부지만 받아놓은 상태였다. 그리고 인민대학습당은 하루에도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독자들이 찾아오는 곳이고 여러 나라에서 오는 외국대표단들과 개별적인사들, 해외동포들의 참관을 비롯한 대외행사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중요대상이였다. 자기가 하는 일이 다름아닌 인민들에 대한 관점과 자세, 나라의 대외적권위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라는 자각이 그의 마음에 불을 달아주었다.

그는 본때있게 해볼 결심으로 일판을 벌렸다. 일단 결심하고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내미는 그의 이악하고 정열적인 성격은 식당을 꾸리는 사업이 하루가 다르게 진척되게 하였다.

그때로부터 몇개월후 식당은 자기의 면모를 갖추고 영업을 시작하게 되였다. 그는 봉사성을 높이도록 봉사원들에게 요구성을 높이는것과 함께 료리도 민족료리들을 기본으로 하여 봉사를 시작하였다.

그는 지배인사업이 바쁜 속에서도 민족료리의 가지수를 늘

력사인물

철학자 최한기

최한기(1803—1879년)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철학자이며 실학사상가이다.

그는 봉건량반집안에서 태여나 첨지의 벼슬을 지낸 일이 있으나 생애의 대부분을 교육과 저술사업에 바쳤다. 그는 철학뿐아니라 천문, 지리, 물리, 수학, 생물학 등의 자연과학에 대하여 깊은 지식을 가지고있었으며 세계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도 소유하고있었다.

당시 그는 긍정적의의를 가지는 일련의 견해들을 내놓았다.

그는 도교, 불교, 유교에 대하여 비판적태도를 취하고 독자적인 《통교(세계학)》를 창조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물질적《기》의 규정성을 주장하고 《기》에 의한 세계의 물질적통일성, 그의 시공간적무한성, 불멸성을 론증하였으며 세계만물의 다양성을 《기》의 각이한 결합방식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또한 사람은 감각기관과 사유기관을 갖춘 기계라는 인간기계론적견해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유교의 《상제》나 천명론(사람의 운명은 《천》에 의하여 미리 규

이고 질을 높이기 위해 정열을 바쳐갔다.

료리와 관련한 책들은 읽지 않은것이 없으며 나중에는 의학서적과 미술서적들까지 탐독했다는 그다. 민족료리에 대해 파고들수록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그것을 빛내일 의무감 그리고 민족적인것을 적극 장려하고 내세우는 조국에 대한 고마움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았다.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은 민족료리를 더 잘, 더 다양하게 만들어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높이 떨쳐가려는 뜨거운 열정을 낳게 하였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그는 《자기의것에 대한 사랑과 긍지야말로 우리들이 지녀야 할 첫째가는 풍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민족료리를 료리중의 료리로 빛내일수 있게 하는 비결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지식과 자각만으로는 안되는것이 료리였다. 눈에는 익고 손에는 설고…

하나의 료리법을 익히기 위해 그가 꼬박 한밤을 취사장에서 새워 주위사람들을 놀라게 한적이 몇번이였던지도 모른다.

이와 함께 그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해도 민족의 미풍량속대로 깍듯이 례절을 지켜나가도록 봉사원들에게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였다.

그의 이러한 노력으로 하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음식인 평양랭면, 닭고기온반, 소적쇠구이, 잣죽, 돌솥비빔밥을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이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하였던것이다.

언제나 고마운 조국을 심장속에 안고 산 그였기에 그는 나라의 부강번영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썼고 인민군대원호사업에도 앞장섰다. 그리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건설을 지성을 다해 지원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어느해인가 일본에서 온 미숙의 동무들과 친척들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했다고 한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민족적인것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여나가는 내 조국의 아름다운 화원에서 나도 오늘과 같이 성장할수 있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료리도 함께 만들어보며 …

정되여있다고 하는 숙명론적사상)을 반대하였고 불교와 카톨릭교, 풍수설을 비롯한 각종 미신이 허황하다고 폭로비판하였다.

그는 진리의 기준을 대중의 경험에서 찾았으며 지행문제에서 지선행후, 지행합일, 지행병진설들을 반대하면서 행동이 먼저이고 지식이 다음이라는 행선지후설을 주장하였다.

최한기는 륜리도덕규범이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부여된다는 견해를 반대하고 그것은 사회생활의 산물이라고 하였으며 도덕적인 선과 악에 대한 평가기준은 대중의 리해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그는 봉건통치배들의 보수적인 《쇄국정책》을 반대하고 개국론을 주장하였으며 각국의 문물제도를 료해하고 그것을 취사선택하여 섭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밖에 계몽적인 교육사상을 제기하였다. 그는 특권교육을 반대하고 서민교육을 주장하였으며 교육내용의 실용성과 기술 및 자연과학교육을 주장하였다.

최한기의 사상은 당시 진보적이였으나 봉건제왕의 존재를 인정하고 삼강오륜의 사상을 시인하는것과 같은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그의 철학사상은 우리 나라 철학사에서 중세철학으로부터 근세철학으로 넘어가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그의 저서로는 《명남루선집》 수백권과 《인정》, 《지구전요》 등이 있다.

* * *

산간벽촌의 새 풍경

지난해 가을 어느날, 우리는 중국 흑룡강성 학강시 박정숙동포의 조카 박동필이 살고있는 황해북도 연탄군을 찾아 뻐스에 올랐다.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연탄땅의 가을풍경은 유정하였다. 눈처럼 하얀 목화송이들이 눈길을 끄는 목화밭이며 규모있게 정돈되고 곡식들이 무르익은 농장포전들은 마치도 집뜨락의 꽃밭같이 아름다왔다.

오늘 고향땅을 락원으로 가꾸어가는 연탄사람들의 일솜씨는 많은 사람들의 찬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그들의 일본새를 따라배우기 위해 연탄군을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우리가 탄 뻐스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명이나 있었다.

연탄읍에 도착한 우리는 마중나온 군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그는 해방전 연탄군은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진 산간지대로서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단순한 공업시설마저 없었으며 조, 수수, 콩, 감자같은것을 심어 겨우 생계나 유지하던 산간벽촌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고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10여년전부터 연탄사람들은 나라가 일시적인 시련을 겪은 고난의 행군시기의 흔적을 하루빨리 가시고 군을 일떠세워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일군들부터가 앞채를 메고 발이 닳도록 앞장에서 뛰였다. 일군들이 대중의 심장속에 불을 지펴주고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니 곳곳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기적과 혁신이 일어났다.

황주천과 그 지류들에 이미 있던 발전소들이 개건되였고 여러개의 발전소들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군안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였다.

그에 맞게 화학공장과 종이공장, 세멘트공장, 고려약공장, 장공장, 직물공장, 가구생산협동조합 등이 개건되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소비품들이 군내인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차례지기 시작하니 사람들은 모두가 일한 보람을 느끼였다. 특색있는것은 산골군의 특성에 맞게 산나물, 산열매 등을 리용하여 가정부인들로 조직된 식료가공기지에서 생산하고있는 여러가지 식료품들이 주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있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수립된 군인민병원에서

는것이였다. 실개천이 흐르고 샘물이 있는 양지바른 산기슭마다에는 문화주택들이 규모있게 일떠섰고 과수원이 조성되여 사과와 배가 주렁지게 되였다.

오늘 군에서는 지방산업공장들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군의 실정에 맞게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상점, 기관, 기업소들마다에 여러가지 유휴자재수집통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얻어지는 유휴자재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으며 각곳에 교환상점을 내오고 수매품과 상품을 교환해주고있다.

글소리 랑랑히 울려나오는 연탄소학교에서 만난 교장 고세언은 우리에게 군안의 학생들모두가 학습과 조직생활은 물론 향토애를 지닌 소년애국자들로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모범교육군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가겠다고 하였다.

연탄종이공장에서

어느덧 하루해가 기울고 저녁어둠이 깃들었다.

읍거리에는 가로등이 환하게 켜지기 시작하였다. 집집의 창가마다에서도, 조선식합각지붕을 얹은 국수집이며 현대적미감이 나게 세운 은덕원에서도 밤늦도록 밝은 불빛이 흘러나왔다.

산간벽촌의 새 풍경에 심취된 우리는 그것을 한폭의 그림처럼 새겨안으며 오래동안 불밝은 읍거리를 거닐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우리는 박동필이 살고있는 장운리로 떠나게 된다.

우리는 확신할수 있었다. 산에 산이 겹친 산골군인 연탄땅 그 어디에서나 인민들의 행복한 웃음이 꽃피여나는 모습을 보게 될것이라고.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최유성

연탄종합상점에서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동포 여러분, 2010년대의 네번째해가 밝아옵니다.

새해 주체103(2014)년을 맞으며 여러분의 사업과 생활에서 보다 큰 성과와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국인민들은 지난해를 의의있게 장식한 긍지와 함께 래일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 설레이고있습니다. 해외에 계시는 여러분의 심정도 같으리라고 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조국에서는 세계 수많은 나라와 인민들의 관심속에 조국해방전쟁(1950. 6—1953. 7)승리 60돐과 공화국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식령스키장건설이 힘있게 다그쳐져 자기의 모습을 완연히 드러냈으며 문수물놀이장,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 은하과학자거리, 비타민C공장 등 나라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수많은 창조물이 새로 일떠섰습니다. 이와 함께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왔습니다. 그 나날 여러분은 통일애국의 길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재미동포전국련합회를 비롯한 동포조직들에서는 동포들속에서 민족의 대, 애국의 대를 변함없이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였습니다. 한편 조국의 평양과 개성, 중국의 심양과 로씨야의 모스크바 등 각지에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행진과 시위, 대회 등을 진행함으로써 동포들사이의 단합을 공고히 하고 조국인민들에게 힘을 북돋아주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그 모습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불편한 몸이지만 여생을 애국의 길에 바칠 일념으로 성의어린 **김일성김정일**기금을 안고 평양을 방문하였던 중국 흑룡강성 녕안시의 전태섭, 리보배동포로인들, 음악으로 민족의 통일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누가 알아주건 말건 진심을 바쳐오고있는 미국 우륵교향악단 단장 리준무동포, 조국의 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두고 사심없는 노력을 기울여온 중국과 로씨야, 미국과 카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살고있는 동포들…

비록 여러분은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지만 그렇듯 조국인민들과 마음을 하나로 합치며 애국으로 날과 달을 이어왔기에 지난해 2013년은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있어서 보람차고 긍지높은 해로 되는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은 세월이 흘러도 조국인민의 기억속에 길이 새겨질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의 미래는 조국의 강성국가건설과 통일에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을 바라보고있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밝은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보다 큰 보폭으로, 보다 힘차게 통일애국의 걸음을 내짚어야 할것입니다.

하나의 뜻으로 뭉쳐진 힘은 모든 승리의 원천입니다.

우리모두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나아갑시다. 가정과 이웃의 화목, 동포조직안의 단합을 보다 튼튼히 이룩하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살고있는 지역과 지경을 넘어 민족의 큰 지붕아래 더 굳게 뭉칩시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힘겨워도 어려워도 서로 믿고 의지해주는 하나의 대가정의 식솔들이 되여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힘으로 보란듯이 펼쳐놓읍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고 일심단결의 전통이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새해를 맞으며 민족의 희망찬 래일을 그려보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인사를 드립니다.

해외동포사업국 부처장
김유성

10년은 젊어진것만 같다

처녀시절 고국에 와본후로 처음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나는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았는데 참으로 감동적이였다.

공연에서는 수만명의 출연자들이 배경대와 춤, 기교 등으로 조선민족의 어제와 오늘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그가운데서도 제일 인상적인것의 하나가 오늘의 고국의 모습이다. 출연자들은 공연에서 발전된 우주과학기술과 대규모의 사과밭을 형상하는가 하면 현대적으로 일떠선 수도의 창전거리며 릉라인민유원지, 릉라곱등어관을 비롯하여 고국이 최근년간에 일떠세운 창조물들을 생동하게 펼쳐보이였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고국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얼마나 큰 힘을 넣고있는가를 잘 알게 되였다. 고국인민들의 말에 의하면 지난 몇해사이에만도 살림집과 병원, 물놀이장을 비롯하여 인민생활향상과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많은 창조물을 건설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방대한 규모의 축산기지건설과 발전소건설 등 많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고 한다.

나는 생활이 나날이 향상되여 가고있는 모습, 환희와 신심에 넘쳐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대하고보니 정말 마음이 기쁘다. 10년은 젊어진것만 같다.

나는 집에 돌아가면 자식들과 동포들에게 고국의 모습을 잘 알려주겠다.

중국 료녕성 단동시 김유자

하나의 모습

나는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가슴에 깊이 간직되는것은 민족에 대한 생각이다.

북녘인민들 모두가 해외에 사는 동포들과 생김새도 같고 말과 글도 같았으며 식생활과 옷차림, 정서생활 등 모든것이 우리와 다를바 없었다.

나는 명승지인 룡악산으로 가는 길에 농장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 모두를 통해 나는 조선민족은 그 어디에 살아도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의 근본은 감출수 없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나는 남조선에도 가보았는데 남녘인민들의 생활풍습도 역시 우리와 다름이 없었다.

비록 북과 남은 사상과 제도에 있어서 여러가지 차이를 안고있지만 그것은 결코 민족의 공통성보다 클수 없다.

언어와 피줄, 풍습이 같은 우리 민족은 반드시 강토의 분렬을 끝장내야 한다.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반만년 오랜 세월을 하나의 강토에서 함께 살아왔다. 바로 그렇기에 북과 남, 해외의 온 조선민족이 통일을 절절히 바라고있다.

통일을 실현하는 길에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하나의 모습을 지닌 우리 민족이 단합된 힘으로 통일을 기어이 실현하리라는것을 믿는다.

로씨야 모스크바주
리 나제쥬다

력사종합교양구를 참관하였다.

무사복을 입어보며

최은복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과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지구협회일군대표단이 평양민속공원을 참관하였다.

원시사회로부터 근대에 이르는 반만년민족사를 집약적으로 반영한 9개의 대형벽화직관판들앞에서 강사의 해설을 들은 동포들은 전시구들을 돌아보았다. 금강사탑우에 올라 거북선을 비롯한

력사유적전시구에서

고국방문

— 평양민속공원을 찾은 재중동포들 —

황룡사 9층탑을 돌아보며

민족의 반침략투쟁의 력사를 보여주는 유물들과 전시구들을 부감한 동포들은 현대구도 돌아보고 민속촌구에 있는 고구려관청, 고려성 등과 발해와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대표적인 건축물들도 참관하였다.

량해자, 허상숙동포들은 민족의상전시장에서 고구려무사들의 갑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서 흘러간 력사를 맛보는 심정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하였다.

민속공원을 참관하는 동포들의 가슴마다에는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빛내여주시려 명당자리에 평양민속공원을 세워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의 정이 차넘쳐있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금강사탑에 올라

거북선도 돌아보았다.

민속촌구를 돌아보고

협회녀성들의 마음

지난해 우리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으며 고국을 방문한 로씨야고통련 녀성협회 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한적이 있었다.

몇해전부터 면식이 있는 사이여서 우리는 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런데 여느때와 달리 류창하게 번지는 인사말이 귀맛을 끌어당기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끝없이 이어지는 대화과정에 우리는 그들의 조선말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발음이 정확할뿐아니라 단어소유량도 많아졌으며 자기들의 감정표현과 어휘구사능력도 예전에 비할바가 못되였던것이였다.

몸은 비록 해외에 있어도 조선민족의 긍지를 안고 가슴을 쭉 펴고 아름다운 우리 말을 적극 살려쓰고있는 동포들모두가 하나와 같이 돋보였다.

지난 시기 재로동포들가운데는 고국을 방문할 때마다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안타까와하는 동포들이 있었다.

그들은 품을 들여 배운 몇마디의 단어조차도 적절하게 쓰지 못했다. 그리고 자칫 잘못 말하였다가 사람들의 웃음거리라도 될가봐 자신감이 없어 크게 말하지도 못하고 입속으로 중얼거리군 하였다.

김 조야회장을 비롯한 협회의 성원들은 우수한 조선말을 적극 살려쓰기 위한 사업을 발기해나섰다.

그들은 세대가 끊임없이 바뀌여도 조선사람의 본태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후대들을 위해서도 녀성인 우리가 잘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말을 배우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때부터 녀성협회 사무실에서는 녀성들의 조선말공부가 시작되였다.

처음 그들은 우리 말을 제일 잘하는 부회장 송 웨라와 김 뽈리나에게서 매일 몇시간씩 배웠다.

정 로라, 김 라리싸를 비롯하여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50, 60대의 녀성들은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옳바른 민족정신을 심어주고 그들이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더 깊이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말공부에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고국에서는 녀성협회 성원들을 위하여 로씨야의 모스크바에 이쁘게 생긴 녀선생님을 보내주었다. 그들의 우리 말공부는 더욱 활기를 띠고 진행되여 나갔다.

그들은 단어와 문장읽기, 글씨련습을 부단히 하였으며 시험을 통해 자신들의 실력을 검증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우리 말로 씌여진 도서를 읽을 때에도 거기에 나오는 새로운 단어들을 익히기 위해 열성을 다했다.

그들은 조선노래를 배우는 시간을 제일 좋아하였다.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다시 만납시다》, 《아리랑》을 비롯한 10여편의 가요들은 그들이 감정정서적으로 제일 잘 부르는 노래로 되였다.

지난해 7월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지하는 해외동포대회에서 녀성협회 성원들모두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발걸음》을 비롯한 조선노래들을 훌륭히 불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해외동포조직대표들과 로씨야의 인사들, 각계층 동포들을 크게 격동시키였다.

…

우리가 취재를 마치려는데 정 로라동포가 먼저 우리 말로 정깊게 작별인사를 하는것이였다.

따뜻이 인사말을 나눈 우리는 함께 마주보며 웃음을 지었다.

정동포는 우리의 취재수첩에 《정 로라》라는 자기의 이름을 우리 말로 또박또박 써주며 《우리 서로 잊지 맙시다.》라고 하였다.

이국에서도 민족성을 잃지 않고 우리 말을 배우고 구사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민족에 대한 사랑, 미래에 대한 지향이 함뿍 실려있었다.

본사기자 연 옥

상식

자기 나이를 10살 떼버리고 사고하고 행동하라

최근 과학자들이 수많은 탐구와 연구를 거듭한 끝에 중년기와 로년기의 사람들이 자기 나이에서 10살을 떼버리면 기호, 취미, 희망 등 모든 심리상태가 10년전의 수준에로 되돌아간다는 결론을 얻었다.

심리학의 각도에서 보면 사람이 심리활동을 10년전의 수준에서 하게 되면 육체적기질에도 좋은 작용

로인의 남다른 생활

중국 길림성 통화현 쾌대무진에 류다른 집 한채가 있다.

양지바른 곳의 아담한 2층짜리 집에는 곳곳에 아름다운 화분들이 놓여있다. 보다 눈길을 끄는것은 집의 단출한 식구수에 비해 생활용품의 수가 상당히 많은것이다. 이불만 하여도 서른채씩이나?!

여기에는 이 집의 가장인 박준호동포로인의 남다른 마음이 깃들어있다.

평시에 그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가운데는 한 고장에서 사는 동년배동포로인도 있고 손자벌의 젊은 동포들도 있으며 그의 집에서 70～80리씩 떨어진 곳에서 사는 동포들도 있다.

박준호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고 고등학교시절 조선력사와 지리공부에 열중한 그는 어찌 보면 남보다 이야기주머니가 큰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흥심을 돋구는듯 하다. 실지 그가 떠올리는 화제에는 옛 력사인물들에 대한 구수한 일화도 있고 국제적인 정세흐름에 대한 분석적인 이야기도 있으며 체육경기들에 대한 흥미진진한 평론도 있다.

그가운데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조국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는 통화현에 태를 묻고 살아오는 년장자로서 동포들에게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하여 자기들이 사는 고장에 찍으신 력사의 발자취와 함께 그이의 항일혁명투쟁업적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군 한다. 그리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1950. 6—1953. 7)에 참전하여 침략자들을 무찌른 자기의 전투담들을 실감있게 들려주기도 한다.

조국해방전쟁에 참전, 그것은 실지 그에게 있어서 뜻깊은 추억이였다. 돌이켜보면 그는 전쟁이 일어난무렵 추천받은 대학으로가 아니라 조국으로 달려나와 조선인민군에 편입되여 싸웠다. 그는 서울, 전주, 광주, 대전 등을 해방하기 위한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웠다.

그는 이렇게 말하군 한다.

《잊혀지지 않는 전투들중의 하나에는 1950년 8월 경상남도 함안군(당시)에서 있은 12당산고지방위전투도 있소. 부산이 눈앞에 있었지. 그때 적들은 수적, 기술적우세를 믿고 여러날동안 비행기와 대포로 쉬임없이 폭격과 포격을 들이대고 파도식으로 공격해왔소. 그러나 우리가 물러서지 않자 이번에는 우리를 굶겨죽이기 위해 아군의 물자보급로를 모두 끊어버리고 고지주변에 있는 마을까지 불살라버리며 된장 한술갈도 안남겼소. 지어 우물에 독약을 쳐서 물도 마시지 못하게 했지.

하지만 우리는 며칠씩 굶으면서도 끝까지 고지를 사수했소. 왜냐하면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기때문이였소.》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을 놓고 보면 거기에는 그의 소중한 마음이 일관되여있다. 그것은 사람은 그 어디에 살아도 자기 조국과 민족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것이다.

그는 그 마음을 안고 수십여년세월 조국의 들끓는 건설장들에 성의어린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보냈고 조국인민들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남먼저 진심을 바치였다. 그리고 전쟁시기 팔에 입은 관통상으로 몸이 불편하지만 동포들의 집을 찾아 걷고걸으며 그들을 한명한명 애국의 길에 내세웠다. 안해(량경순)가 동포조직의 지부장사업을 맡은후에는 동포들이 달마다 한데 모여 학습도 하고 민족음식도 만들며 단합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품들여 새집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먼곳에서 오가는 동포들의 침식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이불도 장만하고 식사보장에도 적지 않은 왼심을 썼다.

지금 그의 나이는 팔순이 훨씬 넘었다. 남들 같으면 손자, 증손자들을 거느리고 여생을 편히 지낼 나이이건만 그는 오늘도 이렇게 생활을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홍정혁

을 하게 된다.

연구결과는 면역계통의 기능은 직접적으로 대뇌피질에 의거하기때문에 젊어지게 하는 정신적심리상태는 필연적으로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이며 모든 장기의 기능이 전면적으로 높아지게 한다고 밝히였다.

때문에 자기 나이에서 10살을 떼여버려 심리상태를 주동적으로 젊어지게 하는것은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손수건에 담겨진 사연

최룡복

지난해 7월 29일 평양의 인민극장에서였다. 극장은 조국해방전쟁승리(1953. 7. 27) 60돐경축 조중 두 나라 로병들의 친선련환무대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로 만원을 이루었다. 그들은 수십년만에 옛 전우들과 자리를 같이한것으로 하여 환희로 설레였다. 하지만 한 로인만은 두눈을 지그시 감고있었다. 많은 사연이 실린듯 무겁게 다물린 입, 자그마한 흰천을 받쳐든 두손…

그는 중국 료녕성 심양시 대동구에서 온 최룡복동포였다.

그의 생각은 1958년 3월 9일 밤에로 바닥없이 흘러갔다.

당시 강원도 평강역마당은 온통 사람천지였다. 손에손에 꽃묶음을 든 평강군의 각계층 인민들과 학생들, 인민군장병들, 그들은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과 어깨를 그러안고 격정을 터치였다. 몇분후면 전선에서 함께 싸우고 오래동안 같이 생활해온 지원군용사들과 영영 작별하여야 했던것이였다. 그 물결속에 바로 최룡복동포가 한 젊은 녀인과 마주하고있었다. 녀인에게서 흰 손수건을 받아든 동포의 눈에는 뜨거운 것이 고여있었다. 동포는 녀인의 이름도 묻지 못한채 여러가지 색실로 수건에 수놓아진 네송이의 무궁화와 《조중친선 만세!》라는 글을 보고 또 보았다.

조중친선,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전화의 나날 가슴에 깊이 새겨진 글발이였다.

그는 주체39(1950)년 6월 조선전쟁이 일어난후 중국인민지원군용사로 전선에 달려나왔다.

당시 지원군 제27군에 편입된 그는 장진호반전투, 상감령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였다. 그 전투들은 모두 생사를 판가리하는 치렬한 싸움이였다. 395. 8고지전투때에는 적들의 끈질긴 폭격으로 하여 한길되던 전호가 전부 평평해지고 중대의 인원이 15명밖에 남지 않은 속에서도 끝까지 고지를 사수하였다.

그 나날 그는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고국인민을 희생적으로 돕는 중국인민들의 모습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동시에 남녀로소모두가 떨쳐나 군수품수송대, 부상병담가대, 도로 및 교량복구대, 식사운반조, 세탁조 등을 조직하여 지원군을 적극 원호하는 고국인민들의 모습도 가슴속깊이 새겼다. 28살의 꽃다운 청춘을 서슴없이 바쳐싸운 중국인민의 수령 모택동동지의 아들 모안영과 한몸이 방패가 되고 육탄이 되여 전투승리에 크게 이바지한 황계광, 양근사 등 수많은 지원군용사들 그리고 적기의 폭격속에서 몸으로 지원군부상병을 덮고 희생된 박재근농민이며 최후의 순간 있는 힘을 다하여 적들에게 체포된 지원군정찰병을 구원한 안옥희녀성을 비롯한 고국인민들…

참으로 전쟁기간에 발휘된 조중인민의 정은 중국의 문호 곽말약의 글그대로 《피로써 맺어진 애국주의와 국제주의의 결정》이였다. …

동안이 지나 동포는 눈길을 들었다. 친선련환무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국의 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가 장내에 울리였던것이다.

후날 그는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평생 손수건을 준 그 녀인을 잊을수가 없었소. 그래서 3년전에 고국을 방문하여 평강과 상감령부근을 다시 찾아보았지. 비록 그 녀인은 만나지 못했지만 감회가 깊었소. …

언제인가 나는 심양에 있는 로인들의 정양소에서 이 손수건을 사람들에게 보여준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지난 세기 함께 손잡고 항일혁명투쟁을 벌린것은 물론이고 조선인민이 도와준 중국의 동북해방전투와 중국인민이 도와준 조선전쟁으로 하여 중조인민의 의리와 우의, 친선의 정은 더욱 깊어졌다고 말하였소.

앞으로 나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이 손수건은 나와 그 녀인의 인연만이 아닌 조중 두 나라 인민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이라고 생각하오.》

본사기자 조선일

고국은 잊지 않고있다

지난해 2013년 7월 평양에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60돐 경축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재중동포지원군로병대표단 성원들인 중국 흑룡강성 가목사시 동포로병들도 참가하였다.

조국에서 진행되는 전승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할데 대한 초청을 받고 7월 21일 가목사시에서 고국으로 떠나는 재중동포지원군 로병들의 마음은 말할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젖어있었다.

그들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가목사시지부 일군들의 손을 꾹 잡고 《60년전에 함께 싸운 우릴 잊지 않고 이렇게 불러주니 정말 감사하오. 7월 27일은 고국의 영원한 승리의 날이요.》라고 하면서 씩씩하게 떠났다. 그들의 모습은 몸은 비록 타향에서 살아도 전쟁을 도발한 침략자들을 쳐부실 기상을 안고 20대의 젊은 나이에 압록강을 건너 고국으로 향하던 그날의 모습을 방불케 하였다.

고국이 오늘까지도 잊지 않고있는 지원군로병들을 부모님으로 모시였다는 기쁨에 자식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하였고 병환으로 하여 대표단에 속하지 못한 아쉬움속에 《우리의 몫까지 희생된 전우들을 그리면서 전쟁승리를 축하해주오.》라며 지원군대표들을 전송해주는 동포로병들의 얼굴에도 감격이 어리였다.

고국에 도착한 그들은 전쟁의 처참한 페허를 털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일떠선 인민의 수도 평양과 시내 여러곳들, 시민들의 밝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고국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고국인민의 필승의 신념에 대해 다시한번 깊이 느끼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전승 6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를 비롯한 여러 행사에 참가하였다.

행사에서 돌아온 그들은 가족들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가목사시지부 성원들과 함께 좌담회를 가지였다.

지원군로병들을 대표하여 발언한 최계숙동포는 성대한 전승 60돐 경축행사에 자기들을 불러준 고국에 그리고 참가할수 있도록 성심성의로 도와주었을뿐아니라 평양방문의 전기간 곁에서 온갖 편의를 보장하여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최은복의장과 총련합회일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였다.

이어 무대에 나선 지원군로병들은 전후 60년간 꿈결에도 그렇게 가보고싶었던 고국에 가서 재더미를 털고 현대적으로 변모된 평양의 모습에 완전히 매혹되였다고 하면서 평양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고 감탄하였다.

그들은 평양에서 매일, 매 시각 가는 곳마다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고국인민들은 6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자기들을 잊지 않고 친형제처럼 여기고있다고, 고국의 로병들과 서로 인사를 나눌 때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목이 메여 격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고, 헤여지기가 정말 아쉬웠다고 하였다.

더우기 그들은 자신들이 고국에서 일생 잊을수 없는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누린데 대해 말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촬영까지 하고나니 온몸이 터질듯 감격스러웠고 삶의 보람과 긍지에 대해 더 깊이 느끼게 되였다고 하였다.

동포로병들의 자식들은 자기들은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지원군로병들이라는 사실자체도 잊고 살 때가 많았는데 고국에서는 부모님들이 군복에 번쩍이는 훈장을 달고 집에 들어서게 하였다고, 그 긍지와 행복감으로 감격을 금할수 없다고, 부모님들처럼 언제나 고국을 잊지 않고 일을 더 잘하겠다고 결의다지였다.

좌담회참가자들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고국인민들의 정당한 위업을 지지성원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겠다고 하면서 가목사시지부 성원들의 두손을 굳게 잡았다.

본사기자 한신애

첫 통일국가 고려

고려라는 나라이름은 고구려에서 유래된 높고 아름다우며 빛나는 나라라는 뜻이다.

고려는 9세기 송악(개성)을 중심으로 한 중부조선에서 큰 봉건세력으로 장성한 왕건(877—943년)이 918년 6월 개경(개성)을 수도로 정하고 세운 봉건국가이다.

고려는 1392년 7월 함길도(함경도)출신의 봉건세력인 리성계의 반역적인 정변에 의하여 자기 운명을 마칠 때까지 근 500년간 존재하였다.

고려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반만년력사에서 뚜렷한 지위를 차지한 중세시기의 국가였다.

고려는 우선 우리 나라 중세사의 첫장을 빛나게 기록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였다.

고려가 고구려를 직접 계승한 국가였다는것은 나라이름을 동명왕(고주몽)이 세운 우리 나라 력사상의 첫 봉건국가이며 동방의 1000년강국이였던 고구려와 같이 따르도록 한데서 그 싹이 보이였다.

고구려재건의 이러한 리상은 9세기 후반기 옛 고구려땅에 후삼국의 하나로서 후고려가 세워진데서 뚜렷이 나타났다.

918년 옛 고구려땅인 송악(고구려의 부소갑 또는 동비홀)에서 건국을 선포한 고구려 유민의 후손인 태조 왕건은 나라이름을 고구려를 직접 계승했다는 뜻에서 고려로 선포하였다. 고려가 건국을 선포하기 이전에도 고구려라는 나라이름은 국내외에서 흔히 고려로도 불리웠다. 이 사실은 왕건이 나라를 세울 때 국호를 고려로 제정한것은 명실공히 고구려를 직접 계승한다는 뜻에서 지은것이다.

고려는 다음으로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첫 통일국가였다.

지난 시기 일부 력사가들은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의 국가들을 멸망시킨 660년대이후의 신라를 통일신라라고 부르면서 통일국가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력사적사실에 대한 심한 외

야 화

삼십륙계 줄행랑

통윤(16세기 중엽에 활동한 중)이 어느 달밤에 한 마을을 지나다가 한 무리의 왈패스러운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였다.

통윤이 내친 걸음에 무작정 그들의 앞을 지나려는데 평소에 미워하던 중을 보자 그들이 우르르 모여들었다.

《여보, 대사어른, 말 좀 물읍시다. 당신네들은 대사가 되여서 나라정사도 마음대로 하는거요?》

한 녀석이 이렇게 소리치니 옆에 있던 눈이 퉁방울같이 튀여나온 다른 녀석이 《대사는 무슨 대사, 중, 중, 까까중, 접시밀굽이나 핥는 중이지 무어야.》 하고 야료를 부렸다.

이번에는 다른 한 녀석이 나서며 《원래 중들이란 흉칙한 물건들이야. 념불에는 마음이 없고 온통 제올리는 음식에만 옴해있지. 에익, 못된 까까중들.》 하고 걸죽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통윤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얼굴을 쳐들고 그들을 말없이 바라보다 《여보게, 젊은 량반들, 나같은 비천한 놈에게 욕설만 하지 말고 그보다 소승에게 한가지 기묘한 재주가 있으니 그것이나 한번 구경하시구려.》라고 하면서 슬쩍 웃음까지 지어보이였다.

통윤의 말에 그들은 무슨 재주가 있겠는가며 너스레를 떨었다.

《여보슈, 젊은이들, 소승따위가 무슨 특출한 재주가 있겠소만 그래도 눈요기에는 맞춤하리니 어디 한번 보시고 평가해주시구려.》

통윤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앞으로 바싹 다가가 나직이 여쭈었다.

《내 백가지 재주를 다하되 가장 능한것은 녀자를 탐하는 남자의 모양으로, 꽃을 탐하는 벌과

곡이다.
신라가 당나라침략자들을 끌어들여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후기신라는 겨우 대동강이남의 령토와 주민만을 차지하였다.
그후 대동강이북 고구려 옛땅의 넓은 지역에서 치렬하게 벌어진 고국수복을 위한 고구려유민들의 애국투쟁의 결과로 고구려의 계승국인 발해가 출현하게 되였다. 발해는 료하의 동쪽으로부터 연해주일대를 포괄하는 옛 고구려령역과 주민들을 다 망라하는 동족인 고구려의 계승국이였다.
따라서 후기신라는 북쪽과 남쪽에 동족의 국가가 병존하고있었으므로 단일한 통일국가로 될수 없었다.
고려는 건국이후 고구려의 국토통일정책을 계승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건국이후 서경(평양)을 고구려 옛땅수복의 전략적기지로 튼튼히 꾸린 고려는 축성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면서 대동강이북, 압록강이남의 넓은 지역을 수복하였다.
또한 926년 발해가 외세에 의하여 멸망한 다음에는 동족의 품을 찾아 들어오는 많은 발해유민들을 포섭하여 통합하였고 935년에는 경순왕의 후기신라를 귀순시켰으며 다음해에는 후백제를 패망시킴으로써 고려는 내전을 끝장내고 민족을 통합하여 단일한 통일국가로 되였다. 바로 여기에 민족력사상 첫 통일국가로서 고려의 력사적지위가 있다.
고려는 또한 장기간에 걸친 여러차례의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반침략전쟁에서 매번 승리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영예를 빛나게 고수한 자주권이 강한 나라였다.
고려는 또한 민족의 창조적재능과 지혜가 크게 발휘되여 문화가 개화한 국가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고려자기와 세계최초의 금속활자의 발명, 대규모출판문화의 상징인 8만대장경의 편찬, 직조와 조선업의 발전은 민족의 문화적재능을 과시하는 민족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바로 고려의 이러한 자랑높은 력사적지위로 하여 고려를 의미하는 《코레어》(Corea)는 자주성이 강하고 용감하며 재능있고 문명한 조선, 조선민족을 가리키는 국제적용어로 보급되였다.

력사연구소 후보원사 교수, 박사 박영해

나비의 모양을 내는것이니 보시겠소?》
녀자소리에 젊은이들은 헤벌쭉해져 《그거 참 좋은 구경거리일세. 한번 해보구려.》라며 신기해하였다.
통윤은 곧 《앵앵—》 벌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손바닥을 각각 펼쳐 약간 오그려 꽃모양을 한 다음 꽃사이를 날으려는듯 넓은 소매자락을 퍼득여나는 시늉을 하면서 처음 열발자국 나가다가 돌아오고 또 나갔다가 돌아오군 하였다.
이 괴이한 모습에 그들은 막았던 길을 터놓고 웃으면서 오락가락하는 통윤의 모습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통윤이 흘끔흘끔 젊은 녀석들의 눈치를 흘겨보면서 다시 열발자국 가다가는 돌아오고 하다가 급기야 백보가량이나 더 나갔다가 돌아오니 그들은 손벽까지 쳐대며 웃어댔다.
야밤중에 만난 통윤을 괴롭히려 하다가 뜻밖의 구경을 하게 되니 그들은 그만 애초의 생각은 아예 잊고 통윤이 왔다갔다 하는것만을 보고있는데 이번에는 통윤이 그들에게서 수백보나 되는 멀리까지 갔다.
젊은 녀석들이 히죽거리며 통윤이 오기를 기다릴 때 그는 《옛다, 엿이나 먹어라.》 하며 발을 재쳐서 삼십륙계 줄행랑을 놓았다.
그제서야 속았다는것을 알아차린 젊은 녀석들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뒤쫓았으나 그것은 행차후 나발이였다.
이미 수백보나 앞서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리는 통윤을 그것도 한밤중에 잡겠다는것은 어리석은짓이였다.
이렇게 하여 통윤은 불의의 욕을 면하게 되였다.

유모아

《천만다행이지》

어느날 한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콩그루터기에 발바닥을 찔렸다.
그는 발바닥이 아파 연방 신음소리를 냈다. 강가에 나간 그는 발을 씻고 쌈지에서 담배를 털어 불인 다음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면서 중얼거렸다.
《어제 사온 새 신발을 신지 않은게 천만다행이지. 그것을 신었더라면 새 신발에 구멍이 뚫릴번 했는걸!》

우리 나라의 약수분포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는 이름있는 약수들이 많다.

땅속에서 솟는 약수는 먹거나 바르면 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샘물이다. 랭천이라고도 한다. 온도는 20 ℃아래이다.

보통물과는 구별되는 물리화학적성질과 생물학적작용을 가지고있어 이런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는데로부터 약수라고 불러왔다.

우리 나라에는 150여개의 광천자원가운데서 약수가 100여개 있다.

수도 평양을 비롯하여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자강도, 강원도 등 여러 지방에 분포되여있는 약수는 대부분이 수소탄산염천(탄산천), 류산염천, 복합염천이다.

평양시에만도 옥류약수, 삼마약수, 고방산약수, 건국약수, 성북약수 등 많은 약수들이 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 옥류교근방에서 나오는 옥류약수는 주로 염소이온, 수소탄산이온, 칼시움이온, 철이온, 알루미니움, 칼리움이온 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만성위염을 비롯한 소화기질병, 경한 당뇨병, 속발성빈혈치료에 특효가 있다.

삼마약수(평양시 동대원구역 삼마1동)는 류산마그네시움—칼시움천으로서 만성위염, 위 및 십이지장궤양, 만성소대장염, 만성간담도질환 등 소화기질병과 속발성빈혈, 피부병치료에 좋다. 이외에 복합염천에 속하는 성북약수(평양시 모란봉구역 성북동), 광물질이 중등도인 염화염천에 속하는 건국약수(평양시 형제산구역 하당2동), 철을 많이 함유하고있는 류산마그네시움—칼시움천으로서 pH가 낮은 강산성약수인 고방산약수(평양시 대성구역 갑문동) 등 많은 약수들도 만성위염, 위 및 십이지장궤양, 만성소대장염, 만성취장염, 급성간염후유증과 만성간염, 만성담낭염, 만성담도염 등 소화기질병, 간담낭담도질환들과 속발성빈혈치료에 효과가 있다.

이밖에도 조선의 곳곳에 널리 알려진 약수들이 수없이 많다.

대표적으로 강서약수(남포시 강서구역)를 들수 있다.

수백년전부터 널리 알려진 이 약수는 약산성약수로서 만성저산성위염, 동맥경화증, 당뇨병 등의 치료에 특효가 있다.

뿐만아니라 묘향산약수, 옥호동약수, 양덕약수, 검홍약수, 백운약수, 가하약수, 한동약수, 침교약수, 석왕사약수, 요덕약수 등 수많은 약수들이 자기의 고유한 특효를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유명하다.

강서약수, 옥호동약수, 창성약수를 비롯한 수많은 약수터들마다에 훌륭한 시설들을 갖춘 료양소들이 건설되였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병의 예방과 치료에 약수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리용되고있다. 뿐만아니라 약수터들에서는 병약수들을 많이 만들어 각지에 공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료양지에 가지 않고도 아무 곳에서나 약수를 마실수 있게 되여있다.

본사기자 한신애

강서약수생산현장

시인의 기지

훈민정음창제에서 이름을 떨친 성삼문(1418—1456년)은 시인으로서의 재능도 있어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다.

언제인가 그는 사신일행의 한 성원으로 명나라에 간적이 있었다. 언제나 그러했던것처럼 두 나라 문인들은 서로 만나 학문과 경험들을 교류하고 글도 짓고 예술을 감상하기도 하였다.

이 나날에 명나라 사람들은 조선손님들속에 글 잘 짓고 예술에 밝은 성삼문이라는 학자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어느날 성삼문이 머물고있는 곳에 명나라 선비 몇사람이 찾아왔다.

그들은 례의를 지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나서 성삼문에게 청을 드리였다.

《지금 <해오라기>를 그린 명화 한장을 얻었는데 그 그림에 넣을 멋진 시구가 없어서 그러오.

그러니 공이 그에 맞는 시구 하나를 써주시오. 듣기에 시문에 밝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성삼문은 겸손한 태도로 그들의 청을 받아들이였다.

《그건 지나친 소문이요. 시를 그닥 잘 짓지 못하지만 그대들의 청이니 그렇게 해보겠소. 그럼 어디 그 명화를 한번 봅시다.》

그러자 그들은 어줍은 웃음을 지으며 량해를 구했다.

《그 그림은 지금 한 사람이 이리로 가지고오는 중이니 우선 시부터 짓고 보는게 좋을것 같소.》

성삼문은 기꺼이 응하고 붓대를 쥐였다. 잠시 생각을 모으니 기발한 시구가 머리속에서 번개쳤다.

눈같은 옷
구슬같은 발
고기노려 갈대숲에
그 얼마를 서있었나

해오라기의 일반적인 표상을 하나의 그림처럼 생동하게 그려낸 나무랄데 없는 시구였다. 그러나 시를 본 명나라 사람들은 탄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잠시후 기다리던 그림이 성삼문의 앞에 펼쳐졌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해오라기》그림은 채색그림이 아니라 먹으로만 그린 수묵화였고 게다가 해오라기의 몸은 온통 검은색으로만 그려져있었다.

일은 참 난감하게 되였다. 이미 흰 해오라기를 노래하는 시를 썼는데 생각지도 않던 검은 해오라기를 그린 그림을 내놓았으니…

당장 그림에 맞는 다음구를 써야 했다.

성삼문은 태연자약하게 한참동안 껄껄 웃었다. 이윽고 웃음을 그친 그는 다시 붓을 잡고 시를 써나갔다.

네 모습 검은것은
산음현을 날아지나다
왕희지의 벼루씻은
못속에 빠졌음이냐

그 나라에는 이름있는 옛 서예가 왕희지에 대한 전설이 있었는데 그가 고향 산음현에서 어찌나 글씨공부를 열심히 하였던지 그가 먹을 갈고 벼루씻은 물때문에 못의 물이 다 검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있었다.

성삼문은 그 나라사람들이 잘 알고있는 전설을 솜씨있게 리용하여 기발하면서 그림의 내용에도 꼭 들어맞는 시구를 썼던것이다.

시를 본 명나라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눈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돌리다니…》

《왕희지의 이야기를 참말 솜씨있게 잘 끼워넣었소. 대단한 솜씨요.》

《시를 잘 짓는다기에 무슨 소린가 했더니 역시 그 재능과 뛰여난 학식은 따르기 힘들구려!》

그림과 맞지 않던 첫시는 뒤에 덧붙은 시로 하여 자연스럽게 가리워졌고 오히려 시전체가 더욱 의미깊고 형상성이 높은것으로 되였다.

명나라 사람들은 성삼문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하였다.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신일행도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다.

모두가 성삼문의 기발한 문장솜씨를 두고 연신 감탄하며 떠들썩했으나 그만은 변함없는 태연한 자세로 얼굴에 미소지으며 조용히 앉아있었다.

* * *

자주통일의 추동력—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없이는 경제강국도 민족번영도, 인간에 대한 초보적인 권리도, 복지도 교육도 문화도, 새 정치도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길을 따라 통일을 이룩할 때 비로소 우리 민족의 지혜와 재능이 꽃을 피워 민족의 위대함이 펼쳐질것이며 세계와 인류의 평화번영에도 기여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지난해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에 실렸던 글의 한 대목이다.

조국통일, 이것은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의지이다.

온 겨레의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을 이룩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아가는것이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외세가 강요한 민족의 분렬이 반세기이상이나 지속되고있다.

이 참을수 없는 민족적비극은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투쟁할 때에만 통일을 성취할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오랜 세월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화목하게 살아온 조선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된것은 제2차세계대전후 미국에 의해서였다.

그때로부터 미국은 세계제패전략의 실현을 위해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에 매달려 오늘에 이르는 근 70년간 북남사이의 대결을 추구해왔다. 그런 미국이 조선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줄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이다.

하지만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우리는 지난 10여년간의 나날에 깨닫게 되였다.

세기와 세기가 교차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온 겨레는 6. 15북남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라는 애국애족의 리념을 받아안았다.

주체89(2000)년 6월 평양에서 진행된 북남최고위급회담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 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였다. 그리고 주체96(2007)년 10월에는 6. 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 4선언이 채택되였다.

북남대화는 과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신뢰와 협력의 장으로 전환되였다.

반세기이상이나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들이 이어지고 하늘길, 바다길이 열림으로써 분렬의 장벽에 커다란 파렬구가 생기였다. 그것은 북남사이의 불신을 해소하고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리념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체험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기본담보, 생명선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지금도 우리 인민은 6. 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북과 남으로서로 오가며 한데 어울리고 화해와 단합의 활기에 넘쳐있던 그때를 잊지 못하면서 그 시대가 다시금 활력있게 이어지기를 바라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은 곧 나라의 통일과 잇닿아있다.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고 하여도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 민족끼리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든지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자주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수 있다. 자주통일의 추동력은 우리 민족끼리이다.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애국의 뜻과 마음을 합쳐갈 때 조국통일실현의 유리한 국면은 반드시 열리고야 말것이다.

윤홍기

조 선 속 담
표리부동 (량면성)

—고양이 쥐생각(쥐사정 보듯)

속으로는 해치려는 앙큼한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가장 동정하는척 함을 비겨이르는 말.

—앞에서 꼬리치는 개가 뒤에서 발뒤꿈치 문다

앞에 와서 살살 좋은 말만 하고 비위를 맞춰주기에 급급한 사람일

진속은 어디에 있는가

새로운 함선들을 건조, 배비하고있는 일본의 움직임이 주목되고있다. 일본은 지난해에 가나가와현에서 해상《자위대》에서 가장 큰 함선인 《이즈모》호의 진수식을 진행한데 이어 그 취역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본당국자들은 그것이 호위함이라느니, 순수《방위》를 목적으로 한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제풀에 발이 저려하고있다.

때를 같이하여 중국의 신문들은 《이즈모》호가 과거 일제의 중국침략때 사용된 함선의 이름과 같다고 하면서 함선진수식을 우경화의 상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군사전문가들은 《이즈모》호가 호위함이라고 하지만 크기가 항공모함만 하고 구조가 완전히 현대화된것으로서 언제든지 선제공격능력을 가진 항공모함으로 변할수 있다고 하였다.

우연한것이 아니다. 제원을 놓고볼 때 《이즈모》호는 다른 나라 해군들이 보유하고있는 항공모함들과 비슷하거나 앞서고있다. 배수량에 있어서 지난 세기 영국이 한 전쟁에서 사용한 《인빈써블》급 항공모함보다 더 크다. 그리고 리착륙갑판, 격납고, 비행기승강기 등 항공모함에 있어야 할것은 다 갖추어져있다. 앞으로 이 함선은 조금만 개조하면 스텔스전투기 《F—35》도 탑재할수 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함선을 가리켜 호위함의 간판을 단 위험한 항공모함이라고 하고있다.

하다면 일본의 진속은 어디에 있는가.

력대로 일본은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위협》을 떠들며 《방위》의 간판을 내들고 군사대국화를 다그쳐왔다. 오래전부터 무장장비의 현대화, 고성능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먼거리에 있는 《적》국을 타격할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모지름을 써왔다. 일본은 그 수단의 하나를 항공모함으로 보았다.

이미 제2차세계대전시기부터 항공모함을 가지고있었던 일제는 그것을 가지고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였으며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나라들을 강점하였다. 패망후에는 《평화헌법》에 의해 대규모전투함선을 건조하지 못하게 되여있으나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항공모함제작을 다그쳐왔다. 헌법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 처음에는 대형유조선과 화물선을 특수하게 설계하고 제작하여 유사시에 조금만 개조하면 항공모함으로 만들수 있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후에는 두가지 용도에 사용할수 있는 함선을 건조하여 해상《자위대》에 배비하는 방법을 리용하였다. 그 대표적 실례가 배수량과 구조에 있어서 항공모함과 별로 차이가 없는 《다이구》호 수송상륙함과 《니끄》호 직승기구축함이다.

일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보다 큰 대형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한데로 줄달음쳐왔다. 그 련속과정이 바로 《이즈모》호의 진수이다.

보건대 항공모함을 리용하여 해외침략의 단맛을 보려는것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버리지 않은 일본의 속심인듯 하다. 일본해상《자위대》의 작전반경은 벌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넓은 지역에로 확대되였으며 현재 일본은 해외침략의 선제공격대상을 우리 공화국으로 정하고 공화국에 대한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있다.

오늘날 일본이 저들의 검은 속심을 가리우기 위해 항공모함에 비단보자기를 씌우며 미화하고 있지만 진속은 감추지 못한다.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침략적본성은 살아있다.

본사기자 조선일

수록 보이지 않는데서는 도리여 험담을 하고 모해를 한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양대가리 걸어놓고 말고기 판다

겉으로는 좋은 허울을 썼으나 실제 속은 좋지 못하여 음흉한짓을 함을 이르는 말.

—왼발 구르고 침 뱉는다

무슨 일에 선뜻 남먼저 나서는체하다가 인차 슬쩍 꽁무니를 빼는 행동을 비웃어이르는 말.

긴장격화를 몰아오는 무기수출

스웨리예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매일 5건의 무장충돌이 발생하고있는데 그중 4건은 각측이 미국제무장장비로 일으키는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미국의 무기수출정책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미행정부는 군수업체들이 해외시장을 확대하여 무기를 팔아먹을수 있도록 정치적, 법적조건을 지어주고있다. 미행정부가 군수품 또는 2중용도제품들에 대한 수출통제권한을 국무성이 아니라 상무성에 넘기도록 조치를 취한것만 놓고 보아도 알수 있다. 이것은 미군수업체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기수출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인것이다.

미국은 무기수출을 통하여 경제적리득을 얻는 동시에 수입국들에 대한 군사적예속을 실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군사적통제권을 장악하려 하고있다.

미국제무장장비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무기자체만이 아니라 후속기술, 부속품 등에 대해서도 미국의것을 사들여야 하며 지어 그 무기성능에 따르는 전술, 전법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가혹한 부대조건을 붙이고있다. 미국은 아프리카나라들에 무기를 팔아먹으면서 수입국들에 군사기지제공, 그 나라들의 령공통과권, 항구리용권 등과 같은 조건부를 붙여 군사적특혜를 받아내려 하고있다.

미국의 무기수출은 해당 지역에 대한 군사적지배실현에서도 한몫하고있다. 미국은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 무기를 팔아먹는 대신 그 나라들을 《반테로전》에 끌어들이고 그곳에서 군사적지배령역을 확대하고있다.

미국의 무기판매책동은 국제정세를 긴장시키고 군비경쟁을 몰아오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언제나 정세가 긴장한 지역들이 늘어나기를 바라고있다. 그럴수록 무기를 팔아먹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때문이다. 미국이 우리 나라와 이란 등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을 걸고들면서 정세를 긴장시키고있는 목적의 하나도 저들의 무기를 대대적으로 팔아먹자는데 있다.

지난해에만도 3월초부터 두달동안 벌어진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조선반도정세가 최대로 악화되면서 록키드 마틴, 레이디온, 보잉을 비롯한 미군수업체들이 남조선과 많은 무기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레이디온회사는 수억US$, 보잉회사는 16억US$에 달하는 무기판매계약을 남조선과 체결하였다고 한다. 록키드 마틴과 보잉을 비롯한 군수업체들은 남조선에서 자기 회사의 전투기가 《북조선위협》에 대처하는데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떠들면서 자기 회사의 제품들에 대한 선전을 대대적으로 벌리였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남조선에 신형중거리공대공미싸일 260기와 그 부분품판매계획을 통보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미국회에 요청하였다.

미국은 《년례적》이라는 간판을 걸고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해마다 끊임없는 핵전쟁연습을 벌리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체계적으로 악화시키고 그를 통해 군수업체들의 배를 불리워주고있다.

남조선의 어느 한 국방관련연구소가 밝힌데 의하면 남조선은 지난 5년간의 나라별 무기수입총액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남조선이 수입한 무기들의 대부분은 미국산이다. 지난해 남조선이 구입한 군수품총액도 력사상 최고라고 한다.

오늘날 남조선은 미국의 무기판매시장,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조선반도정세악화를 구실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저들의 무기판매시장으로 전변시키고 침략무력을 집중배비하여 지역대국들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해나가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으로 하여 세계에는 군비경쟁의 파도가 일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대등한 군사력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가자금의 적지 않은 부분을 군사비로 돌리고있다.

미국산무기가 대대적으로 들어가는 곳에서는 언제나 정세가 복잡해지고 전쟁이 일어나군 한다. 그 무기들에 의해 수많은 평화적주민들이 목숨을 잃고있다.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긴장을 격화시키고 침략전쟁을 도발하여 인민들이 고통을 받는 대가로 저들의 리속을 채우고있는 범죄국가이라는것을 증명하고 있다.

본사기자 변진혁

흥국사탑

흥국사탑은 고려 초기의 돌탑이다.

개성시 방직동 고려박물관 옆뜰에 있다.

이 탑은 원래 고려왕궁인 만월대 동남쪽 흥국사절에 세웠던것이다. 절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다.

고려시기에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조상에 대한 제사, 연등회, 기우제(비오게 하는 제사) 등 여러 행사들을 흥국사에서 진행하였다.

흥국사탑은 강감찬장군의 발기로 나라의 안전을 기대하여 1021년에 세워졌다.

탑은 현재 네모난 련꽃받침형기단우에 1층몸돌과 3개의 지붕돌만이 남아있다.

지금 남아있는 탑의 형태와 비례구성으로 보아 원래 5층탑정도는 되였으리라고 보인다.

탑의 높이는 2.61m정도이고 탑의 바닥돌 한변의 길이는 1.71m, 기단 밑돌은 2단으로 추측되는데 아래단에는 측면의 매 면마다 네개씩의 오목이가 새겨져있고 웃단 웃면에는 16잎으로 된 엎어놓은 모양의 련꽃을 두텁게 새겨놓았다. 이와 대칭되게 기단의 아래단 웃면에는 피운 련꽃을 새겨 서로 마주향하게 하였다.

기단 가운데돌 앞면에는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위훈을 세운 《강감찬장군이 1021년 5월에 나라의 태평과 안녕을 위하여 이 탑을 세웠다.》라는 글이 새겨져있다.

1층몸돌의 남면에는 자물쇠가 새겨있는 문조각이 있다. 지붕돌의 처마받침은 낮은 3단으로 되였으며 지붕면은 물결모양으로 원활한 곡면을 이루고있다.

이 탑은 조형수법이 간결하면서도 매개 부분의 비례관계가 잘 조화되여 안정감을 준다.

흥국사탑은 련꽃무늬를 새긴 탑가운데서 만든 년대가 명백한 탑의 하나로서 이런 류형의 탑건설력사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여준 귀중한 돌탑유산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박창목

모란봉의 겨울　　본사기자 최원철

모란봉은 평양에 있는 이름난 명승지이다. 마치 모란꽃과도 같이 생김새가 기묘하고 특이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사방으로 탁 트인 을밀대의 봄경치나 밝은 달이 둥실 떠오를무렵에 펼쳐지는 부벽루의 경치가 모란봉의 경치가운데서도 뛰여난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겨울의 모란봉경치 또한 아름답기로 소문이 났다.

ISSN 1727-9062
9 771727 90600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382150
http://www.naenara.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